

<제1회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발표회>

일시: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저녁 6:00-7:15

방식: Zoom 회의

<https://korea-ac-kr.zoom.us/j/85776980980?pwd=SStNeTNVSmdPcnlyMitPQWROZjFkQT09>

회의 ID: 857 7698 0980

암호: Cjerg2021!

발표 시간표

분야	시간	발표자	발표 논문	토론자
중·일 어학	6:00-6:15	장옥방	상하이방언의 완료상 표지-‘仔’와 ‘过’를 중심으로-	임정아
	6:15-6:30	김소희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 用分析 - 「が」「を」「で」「に」を中心に-	김혜경
중·일 문학	6:30-6:45	황미림	魯迅의文學現代化策略研究-以其筆下的‘鬼’ 形象為例	노윤지
	6:45-7:00	SORIMACHI MASUMI	森崎和江における欠如の深淵-「外地」日本語 と植民地体験がもたらした副作用-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에서의 결여(欠如)의 심연 - '외지' 일본어와 식민지 체험이 가져온 부작용 -)	신민준
중·일 비교 문화	7:00-7:15	허원영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	임재휘

목차

1. 상하이방언의 완료상 표지-‘仔’와 ‘过’를 중심으로- (장옥방).....2

2.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用分析 -
「が」「を」「で」「に」を中心に - (김소희).....18

3. 魯迅的文學現代化策略研究-以其筆下的‘鬼’形象為例 (황미림).....21

4. 森崎和江における欠如の深淵 -
「外地」日本語と植民地体験がもたらした副作用-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에서의 결여(欠如)의 심연 - '외지' 일본어와 식민지 체험이
가져온 부작용 -) (SORIMACHI MASUMI).....38

5.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 (허원영).....41

상하이방언의 완전상 표지

— ‘仔’, ‘過’를 중심으로

장옥방(박사7학기)

<목 차>

1. 서론
2. 완료상 표지 ‘仔’
 - 2.1 ‘仔’의 내원
 - 2.2 ‘仔’의 의미 특징
 - 2.3 ‘仔’와 ‘了’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경험상 표지 ‘過’
 - 3.1 표준어에서 조사 ‘過’의 의미 특징
 - 3.2 상하이방언에서 조사 ‘過’의 의미 특징
 - 3.3 상하이방언의 중행상(重行體) ‘過’
4. 결론

1. 서론

‘了’와 ‘過’는 현대 중국어의 완전상 표지이다. 그중 ‘了’는 완료상 표지이고, ‘過’는 경험상 표지이다. ‘了’는 동사나 일부 형용사 뒤에 추가되어 동작의 발생이나 상태의 출현을 나타낸다. 동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V+了’는 동작의 발생을 나타낼 수도 있고,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刘月华 등 2003:362). ‘過’는 경험상 표기로 동사와 형용사 뒤에 추가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있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朱德熙 2012[1982]:72). 이것은 표준어의 경우이다.

상하이방언에서 동작 완료의미를 나타내는 완료상 표지는 ‘勒[ləʔ]’이며, 许宝华·汤珍珠(1988:437)는 ‘勒’를 ‘勒₁’과 ‘勒₂’로 나눠 각각 표준어의 ‘了₁’과 ‘了₂’에 대응케 했다. ‘勒₁’은 구파의 ‘仔’에 해당하며 ‘勒₂’는 문미에 있고, 옛날에는 ‘戙’를 썼다. 상하이방언에 있는 ‘勒₁’, ‘勒₂’의 발음은 표준어의 ‘了₁’, ‘了₂’와 유사하고 문법적 기능도 유사해서 많은 상하이방언 교재에서 ‘勒’는 아예 ‘了’로 쓰기도 하며, 이 두 다른 상 표지를 같은 상 표지로 보았다. 그러나 상하이방언과 표준어는 발음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상하이방언의 ‘勒’는 고유한 상표지가 아니다. 상하이방언의 고유한 완료상 표지는 ‘仔[tɕɿ]’로 동사 뒤에 쓰여 ‘문장에서 나타내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거나 실현됐음을 나타낸다(钱乃荣, 2014:223)’. 또한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 a. 后頭**跟仔**好几个人。(后面**跟了**好几个人。)
뒤에 여러 사람이 따랐다.
- b. 收仔銀子**啗信**, **撥仔**送信个人一百个銅鈔。
(**收了**銀子和信, **給了**送信的人一百錢。)
돈과 편지를 받고,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백전을 주었다.

(錢乃榮 1997:210)

(2) a. 窗關仔, 門開仔, 屋里廂無人。(窗關着, 門開着, 家里沒人。)

창은 닫혀 있고, 문은 열려 있고, 집에는 사람이 없다.

b. 上身着仔一件滑雪衫。(上身穿着一件滑雪衫。)

위에 오리털 잠바를 입고 있다.

許寶華·湯珍珠(1988:437)

예문1(a-b)의 ‘仔’는 동작의 완료를, 예2(a-b)는 동작의 지속을 의미한다. 左思民(2014:319)은 ‘门口立仔一个人’이 표준어에 대응하는 ‘门口站了一个人’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그는 또한 이 구문을 표준어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门口站着一个人’라고 했다. 왜 ‘仔’는 ‘완성의미’와 ‘지속의미’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서로 다른 상 표지를 사용할 때, 통사 구조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표준어의 완료상 표지와 무슨 다른 점이 존재할까?

또한 표준어의 경험상 표지는 ‘过₁’과 ‘过₂’로 나뉘는데 ‘过₁’은 동상보어로 동사 뒤에 따라 동작의 완성을, ‘过₂’는 경험상 표지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나타낸다. 어떤 ‘경험’은 어떤 동작의 완성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사이가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상하이방언에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过₁’과 ‘过₂’의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할까? 상하이방언의 경험상 표지는 상하이방언의 고유한 표지가 아닌가? 마치 ‘过₁’과 ‘过₂’외에 다른 ‘过’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 ‘依写勒勿好, 重新写过(你写得不好, 重新写一遍)(당신이 잘못 썼으니 다시 써)’라고 했는데 이 다시 썼다는 ‘过’는 동상보어(動相補語)도, 경험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성분인가? 이 ‘过’는 상하이방언에만 존재하는 어법 형태일까, 아니면 다른 방언에도 있는 것일까? 이 문제들은 모두 본 논문에서 해결하려는 문제들이다.

2. 완료상 표지 ‘仔’

2.1 ‘仔’의 내원

梅祖麟(1989)은 ‘仔’는 부착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着’에서 허화된 것으로, 그 허화 과정이 송원 이후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육조(六朝)의 ‘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았다: 정태적인 ‘着’는 표준어의 ‘在’이고 현대 북방어의 지속상 표지로 발전했고, 현대 중국어 오방언(吳語)의 지속상 표지로도 발전했다고 봤다. 예를 들어 ‘骑仔马找马(骑着马找马)’같은 것이다. 동태적인 ‘着’는 표준어의 ‘到’에 해당하며 현대 오방언(吳語)의 완료상 표지인데, ‘吃仔饭哉(吃了饭了)’와 같이 발전했다. 宋元시대 상하이방언의 서면 자료는 찾기 어려웠지만 18세기 외국인 선교사가 펴낸 《上海方言口语语法》에는 [tsɿ]로 발음한 ‘之’가 있다고 하였고 이것은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 표지로 돼 있는데 钱乃榮은 이 ‘之’가 훗날의 ‘仔’라고 여겼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a. 吃之大胆藥者¹⁾。(吃了大胆的藥了。)

담을 크게 해주는 약을 먹었다.

b. 伊就起來跟之耶穌者。(他就起來跟了耶穌了。)

1) 여기에 있는 ‘者’는 과거의 어기조사 ‘哉’이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c. 一部水車搬拉賊偷_之去者。(一部水車被賊偷去了。)

물레방아 한 대가 도둑에게 도둑맞았다.

이 ‘之’는 ‘吃’, ‘跟’, ‘偷’ 등의 활동동사 뒤에 따르고, ‘완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钱乃荣(2007:307)은 허화된 표준어 ‘着’가 상하이방언에서 운모를 잃고 성모가 연장음으로 임혀 ‘仔[tsɿ]

‘仔’는 표준어의 ‘着’에서 허화 되어 왔다. 이는 표준어의 ‘着’과 같이 지속상 표지가 될 수 있고 상하이방언에서는 완료상 표지도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표지합일(標記合一)’ 현상이다. 이러한 ‘표지합일’ 현상은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부합하는데, 혼용되지 않는 것도 문장의 다른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2.2 ‘仔’의 의미 특징

许宝华·汤珍珠(1988:438)는 상하이방언에 네 가지 ‘仔’가 있다고 봤고, 이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동작의 완성 2. 상태의 지속 3. 상태의 존재 4. 연동문에서 동작의 방식이나 목적을 나타냄. 钱乃荣(2007:307)은 ‘仔’를 ‘실현상’, ‘지속상(存续体)’으로 나눠 그 외에 어기조사 기능까지 언급했다. 徐烈炯(1998:193)은 조사인 ‘仔’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표준어의 ‘了₁’과 대응하고, 다른 하나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며 표준어의 ‘着’에 해당한다. 아래 표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다.

상하이방언 ‘仔’의 의미 특징

学 者 학 자	语 义 의 미	例 句 예 문
许宝华 汤珍珠	仔1: 동작의 완성을 표시한다, =勒1 仔2: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仔3: 상태의 존재를 의미한다. 仔4: 연동문, 动1+仔+动2	1. 细软个物事自家带仔走。(细软的东西自己带了走。)귀중품 같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갔다. 2. 上身着仔一件滑雪衫。(上身穿着一件滑雪衫。)윗옷에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다. 3. 门口围仔一帮小青年。(门口围着一帮年轻人)입구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둘러싸여 있다. 4. 踏仔车子寻车子。(踏着自行车找自行车。)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찾다.

<p>钱乃荣</p>	<p>1.실현재,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거나 이미 실현됐음을 나타낸다. 2.지속을 나타낸다.=着 3.연속적인 행동 속에서 존재함.=在……以后 4.수반됨을 나타낸다. 5.재촉, 명령의 어조를 나타낸다. 6.주의의 어기를 나타낸다.</p>	<p>1.我吃仔饭了。(我吃了饭了。) 나는 밥을 먹었다. 2.坐仔比立仔适意。(坐着比站着舒服。) 앉아 있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 편하다. 3.我吃仔饭再走。(我吃了饭再走。) 나는 밥을 먹고 갈 것이다. 4.我跟仔两个人,一道出去了。(我跟着两个人一起出去了。) 나는 두 사람을 따라 함께 나갔다. 5.坐好仔。(坐好了!)똑바로 앉아. 6.门应该锁好仔。(门应该锁好!) 문을 잘 잠가야 한다. 7.看见伊,满头个火,眼睛弹出仔。(看见他,满脑袋的火,眼睛瞪大着。) 그를 보자 화가 머리 가득 치밀어 눈이 휘둥그레졌다.</p>
<p>徐烈炯</p>	<p>1.동작의 실현 또는 완성을 의미하며 목적어 또는 보어를 자주 가진다.=了1 2.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고.=着2</p>	<p>1.依吃仔饭就过来。(你吃了饭就过来。) 너 밥 먹고 곧 와라. 2.床浪向摊仔交关小书。(床上摊着很多小人书。) 침대 위에 많은 만화책이 널려 있다.</p>

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仔’는 표준어의 ‘了₁’에 대응하여 동작의 완성이나 실현을 의미하기도 하고 표준어의 ‘着’에 대응하여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기도 하며, 어기조사로서 어떤 특정한 어투도 나타낼 수 있다. 본문에서는 ‘了₁’에 대응하는 ‘仔’를 ‘仔₁’이라 부르고, ‘着’에 대응하는 ‘仔’를 ‘仔₂’이라고 부르겠다. 본문은 ‘仔₁’의 상황만을 논하겠다. ‘仔’의 출처를 알면 언제 ‘仔’가 ‘了₁’에 대응했는지, 언제 ‘着’에 대응했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仔’앞의 동사가 활동동사일 때, 이는 ‘了₁’에 상응하는 경향이 많고, 앞에 있는 동사가 상태동사나 완수동사일 때, 일반적으로 ‘仔₂’에 상응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 a. 買仔票進去看戲。(買了票再進去看戲。)
먼저 표를 끊고 다음에 들어가서 연극을 보자.
b. 殺仔人就逃。(殺了人就逃。)
사람을 죽인 후에 도망간다.
c. 門口頭蹲仔一只狗。(門口蹲着一只狗。)
입구에 개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다.
d. 牆壁浪挂仔一幅畫。(牆上挂着幅畫。)
벽에 그림 한 폭이 걸려 있다.

(左思民 2014:139-141)

예문4(a-b)의 ‘买’, ‘杀’는 활동동사이고, 연동문에 출현하여 두 개 연속된 동작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仔’를 뒤에 추가해서 동작의 완성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了₁’과 대응한다. 그 반면 예문4(c-d)의 동사는 ‘蹲’과 ‘挂’이고 각각 완수동사와 ‘挂’류 동사이다. 이 때 ‘仔’는 ‘着’과 대응하여 동작의 지속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이 두 문장은 모두 존재 구문의 형태이고 ‘처소+V仔+목적어’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딘가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이때의 ‘仔’는 ‘着’과 대응이 더욱 확실해진다.

그렇다면 왜 ‘门口立仔一个人’은 ‘门口站了一个人’과 ‘门口站着一个人’ 둘 다에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立(站)’이 하나의 상태/완수²⁾동사이기 때문에 ‘立仔’를 ‘立(站)’이라는 동작의 완성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때 ‘立(站)了₁’과 대응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존재구문형식이라서, ‘처소+V着+목적어’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어딘가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门口’에는 ‘一个人’이 존재하고 있다. 이때 ‘立仔’에는 동작의 완성 의미보다 지속 의미가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仔₁’和‘了’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은 아래에 토론해야 할 문제이다.

2.3. ‘仔’와 ‘了’의 공통점과 차이점

钱乃荣(2014:223)은 ‘仔₁’이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문장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①목적어나 보어에는 수량 성분이나 종속 성분이 있다. ②문미에 조사인 ‘哉’가 있어야 한다. ③후속 동사구나 절이 있어야 한다. ④앞에 연관된 성분 혹은 원인을 나타내는 구나 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조건은 마찬가지로 표준어의 ‘了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상하이방언의 ‘仔₁’은 문장을 이루는 조건이 ‘了₁’과 일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겠다.

위의 예문(3c)의 ‘一部水车被拉贼偷之去者’가 표준어 ‘一部水车被贼偷去了’와 대응한다. 상하이방언은 ‘偷+之+去+者’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표준어는 ‘偷+去+了’라는 구조이다. 즉 상하이방언의 ‘之(仔)’는 동사와 방향보어의 중간에 위치할 수 있고 표준어의 ‘了₁’는 위치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a. 做生意个人, 坐仔里向去哉。(做生意的人, 坐到里面去了。)
장사꾼이 안에 들어앉았다. (钱乃荣 2007:307)
- b. 過之二日, 銀票送之轉來者。(過了兩天, 銀票送回來了。)
이틀이 지나자, 은표가 배달되어 왔다. (《土話指南》 1908:85)
- c. 教伊担落下來个果子, 來收之去。(叫他把掉下來的果子, 來收去了。)
그에게 떨어진 과일을 거두어 오라고 했다. (《土話指南》 1908:35)
- d. 各式各樣齊要点, 討之來末, 就要种个。(各式各樣都要点, 討來后, 就要种的。)

각양각색의 것을 다 달라고 하고, 나중에 심어야 한다.

(钱乃荣 2014:227)

예문5(a-d)의 동사와 방향보어 사이에는 모두 ‘仔₁’(예5a의 ‘仔₁’ 뒤에 목적어인 ‘里向(里面)’도 있고)이 있지만 표준어는 없다. 钱乃荣(2007:307)은 예문(5a)의 ‘仔₁’이 동작 행위를 도달하는 장소를 나타낸다고 봤는데, 이는 ‘仔₁’에 뒤따르는 장소인 ‘里向(里面)’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의 세 예문의 ‘之’자 후에 바로 방향보어 ‘来/去’를 덧붙이는 것이 상하이방언과 표준어가 다른 점이다.

2) 중국어 동사 ‘站’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순간동작을 포함된 ‘站’이고 이는 ‘일어서다(起立)’와 같은 뜻을 포함한다. 진행상 표지인 ‘在’와 결합할 수도 없고, 지속상 표지인 ‘着’도 결합할 수도 없다. 다른 하나의 ‘站’은 똑바로 선 이후의 신체 자세를 가리키며 진행상과 결합할 수는 없지만 지속상과 결합할 수도 있다.

또한 ‘仔₁’은 ‘了₃’의 동상보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원형동사로 구성된 把자문구에는 출현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 (6) a. 我把車賣了。 b. 我拿車子賣仔。(X) 나는 차를 팔아버렸다.
 (7) a. 他把垃圾扔了。 b. 伊拿垃圾攢仔。(X) 그는 쓰레기를 버렸다.

위의 예문(6a-7a)은 표준어의 처치문이고 옆에 있는 예문(6b-7b)은 대응하는 상하이방언의 처치문이다. 상하이방언의 ‘賣’, ‘攢(扔)’ 뒤에는 그대로 ‘仔’를 붙이지 못하고 문미의 ‘仔’를 반허화된 ‘脫³⁾’자와 어기조사 ‘哉’ 혹은 ‘勒₂’로 바꿔 ‘脫哉/勒’과 ‘攢脫哉/勒’을 구성하여야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외에, ‘仔’자는 어기사로 쓸 수 있지만, 이 어기사는 ‘了₂’와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仔’자는 변화의미를 가지지 않고 현재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언어 접촉의 영향으로 이제 상하이방언의 상표지인 ‘仔’자가 점점 ‘勒’자와 ‘辣海’로 대체되고 있고, 상하이방언과 표준어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이는 언어 발전의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3. 경험상 표지 ‘過’

3.1 표준어에서의 조사 ‘過’

현대 중국어 표준어의 ‘過’는 조사로 쓰일 경우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완성’ 의미를 뜻하는 ‘過₁’인 ‘过₁’이다. 예를 들어 ‘他吃过饭就走了’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험의미를 나타내는 ‘過₂’이며, ‘過₂’로 불리며 ‘他吃过北京烤鸭’와 같이 쓰인다. ‘过₁’과 ‘過₂’는 모두 이동 동사인 ‘過’에서 허화(虛化)된 것으로 ‘갑에서 을로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것이 허화 된 후에는 ‘看过’, ‘吃过’와 같은 과거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王力 2013[1989]:99).

刘月华(1988)는 ‘過’는 ‘동작 완료’와 ‘경험한 적이 있다’는 두 가지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赵元任(1968)는 ‘동작 완료’를 ‘동상보어(动相补语)’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過’의 어법적 의미를 각각 나타냈다고 하였다.朱德熙(2012[1982]:72)는 ‘어떤 일이 있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過’를 ‘동사 접미사’라고 부르면서 ‘過’는 ‘보어’라는 용법도 갖고 있다고 하였다.

‘過₁’, ‘過₂’를 칭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 ‘过₁’은 일반적으로 ‘완결상 표지’, 또는 ‘동상보어’, ‘過₂’는 경험상 표지 또는 상표지 ‘过’로 칭하는데, 본문에서는 ‘过₁’을 동상보어의 ‘過’, ‘過₂’를 경험상 표지의 ‘過’라고 한다. 과거학교 문법에서 ‘過₂’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봤는데, ‘過₂’의 문법 기능이 ‘過’의 주요 문법 기능도 했기 때문이다. 林新年(2006:154)은 ‘過’는 [동사→過₁→過₂]의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고 봤다. 그러면 ‘过₁’, ‘過₂’는 모두 동사 뒤에 붙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다른가? 그것들은 문법상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동상보어의 ‘过₁’는 완결의 의미를 나타내며 보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3) 여기 있는 ‘脫’자가 일종의 결과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 표준어의 ‘掉’자와 대응할 수 있다. (장옥방 2017:47)

- (8) a. 你昨天讓我看的那本書，我看過了，很有意思。
 네가 어제 나에게 보라고 한 그 책을 나는 보았다. 아주 재미있었다.
 b. 明天你吃過飯到我這兒來一下兒。
 내일 밥 먹고 나한테 좀 와라.

‘過₂’는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만 쓰일 수 있다. 이것은 주류의 의견이지만 미래에도 쓰일 수 있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 (9) 黑三：……潘四爺，八爺醒了之后您可千萬別說我們到這兒來過。(《日出》)
 潘四爺，八爺이가 깨신 후에 우리가 이곳에 왔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來過’는 진정한 미래를 뜻하지 않으며, 하나의 가상(设想) 혹은 가설(假设)이다. 이것은 ‘八爺가 깨어난 뒤’에 대해서 의미하여 여기에 있는 ‘오다(來)’는 ‘八爺가 깨어난 뒤’에 비해 우선시 되며 일종의 가설을 뜻한다. 그러므로 ‘過₂’는 여전히 과거를 의미한다.

둘째, 구조적으로 ‘過₁’은 동상보어이기 때문에 다른 상 표지와 같이 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완료상 표지 ‘了’의 앞에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표기 ‘過₂’는 다른 상 표지와 공기할 수 없다.

- (10) a. 這本書我看過了，你拿去吧。
 이 책은 내가 봤으니 네가 가져가라.
 b. 行李檢查過了，沒問題。
 짐은 검사해 봤으니 문제없다.
 c. 他吃過了飯，還在休息。
 그는 밥을 먹었으니 아직 쉬고 있다.

예문(10) 세 문장 중에 있는 ‘V+過’ 구조 뒤에는 모두 완료상 표지 ‘了’가 있다. 따라서 이 ‘了₁’ 앞에 출현하는 ‘過’는 반드시 동상보어의 ‘過₁’이다. ‘V+過’는 동작의 완성을 의미한다. 여기에 있는 ‘過₁’은 완성을 의미하므로 ‘完’ 혹은 ‘了₁’로 대체해도 된다. 예를 들어 ‘這本書我看完了，你拿去吧.’ 만약 ‘過₁’ 또는 ‘了₁’을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시간부사와의 조화에서 孔令達(1986b)는 ‘過₁’은 일반적으로 ‘曾經’와 같이 출현할 수 없고 ‘過₂’은 ‘已經’와 같이 출현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龔千炎(1995:86)은 ‘過₂’와 ‘已經’가 같이 출현하는 예문을 찾아냈다. 李妍(2006:12)은 같은 문장의 ‘過’는 문맥에 따라 문법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여겼다. 일반적으로 ‘過₂’는 ‘已經’와 같이 출현할 수 없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분석할 때 구체적인 언어 환경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曾經’와 같이 출현하는 ‘過’는 ‘過₂’의 경우가 많고 ‘已經’와 같이 출현하는 ‘過’는 ‘過₁’의 경우가 많다. ‘過₁’은 완성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已經……(過)了’와 같은 구조에 많이 출현한다. 그리고 ‘過₁’ 뒤에서 ‘后,之后,以后’와 같은 시간 부사도 자주 수반한다. ‘過₂’가 ‘경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曾經……過’와 같은 구조도 흔하다.

또 음성 면에서 ‘過₁’, ‘過₂’는 모두 경성으로 읽을 수 있지만 ‘過₁’은 일부 강조가 있을 때 세계 읽을 수 있고 ‘過₂’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읽어야 한다. 이것은 ‘過₂’가 실사에서 허사로 문법화 되어 음성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동사와의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過₂’와 동사의 결합능력은 ‘過₁’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며, ‘過₁’

과 결합할 수 있는 동사의 폭이 좁아서 활동동사만 결합할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過₂’는 활동동사, 상태동사, 일부의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관계 동사도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是’, ‘姓’, ‘會’ 등과 같은 것이다.

刘月华(1988)는 하나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당사자에게 필연적이며 그 사물이 존재하는 기간 중 한 번이면 ‘過₂’를 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这个孩子去年出生过’, ‘*这次会议开过幕’과 같은 것이며 ‘闭幕, 出发, 动身, 毕业, 上学, 放学, 开学’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刘月华的 의견에 동의하지만, 언어의 발전에 따라서 언급하는 동사의 속성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 ‘過₂’와 결합할 수 없었던 일부 성취동사는 현재 ‘過₂’와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毕业’이라는 단어의 경우 CCL에서 7개의 예문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 a. 他似乎也**畢過業**, 但是懶得去領文憑。
 그도 졸업했던 것 같으나, 졸업장을 받는 것은 귀찮아서 가지지 않는다.
 b. “爸**畢過業**嗎?”他問媽媽。
 “아버지는 졸업하신 적 있습니까?”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c. 這會春喜已經二十好几歲了, 又在中學**畢過業**, 又在本村教小學, 因此也 叫不得“春喜”了。
 이제 춘희는 20대 후반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본촌의 초등학교에 가르 치기 때문에 ‘春喜’라고도 불릴 수 없다.

百度에는 ‘毕过业’의 용례가 더 많다. 이것은 언어의 범화(泛化) 현상에 속하며 언어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각종 형식의 졸업은 아마도 여러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사나 형용사가 반복할 수 있다면 ‘過₂’와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반복 가능한 동사/형용사만이 경험했다는 의미의 특징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법적 특징이 바로 조사 ‘过₁’과 ‘過₂’의 차이인데, 이것은 표준어의 경우이다. 상하이방언에서 어떤 상황인지 다음에서 알아보겠다.

3.2 상하이방언에서 조사 ‘過’의 의미 특징

3.2.1 변천과정에 있는 상하이방언의 경험상

상하이방언에서 경험을 뜻하는 상표지도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過’로 사용한다. 许宝华·汤珍珠(1988:445)는 상하이방언에서는 ‘过[ku]’, ‘过歇[ku ɕilʔ]’을 사용해서 어떤 경험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2) a. 我睇只表直到現在還嘸沒出**過**大毛病。
 (我這只表直到現在還沒出過大毛病。)
 나의 이 시계는 지금까지 아직 큰 고장이 난 적이 없다.
 b. 睇樁事体末, 我听大家話**過歇**。
 (這樁事情, 我听大家說過。)
 이 일을 내가 여러분에게 들은 적이 있다.
 c. 太極拳我學**過歇**辣个。
 (太極拳我學過的。)
 태극권은 내가 배운 적이 있다.

노파가 ‘歇’ 또는 ‘歇哉’로 동작의 완성을 표시한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다음 예를 보자.

- (13) 去歇兩趟。 / 看歇戲哉。 / 鐘敲歇辣哉。
 (去過兩趟。 / 看過戲了。 / 鐘敲過了。)
 두 번 갔었다. / 연극을 봤다. / 시계는 쳤다.

여기서 ‘哉’가 문미 조어이고 동작의 완성의미를 나타낸 것은 여전히 ‘歇’인 것으로 생각된다. 钱乃荣(2014:197)은 상하이방언의 ‘경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완성’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주 ‘완료상’과 같이 쓰인다. 예를 들면 ‘我夜饭吃拉哉(我晚饭吃了)’와 “我夜饭吃过哉(我晚饭吃过了)’의 의미는 거의 같다. 상 표지는 ‘过’, ‘过歇’, ‘歇过’, ‘歇’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경험이 있다’는 뜻으로 ‘蛇我吃过歇个(蛇我吃过的)’는 말은 ‘我’가 ‘뱀을 먹은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 의미가 일반적으로 ‘过歇’, ‘歇过’, ‘歇’ 세 개의 상표지만을 사용하지만, 때때로 ‘过’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예를 보자.

- (14) a. 我已經話過哉。(卜 p15) (我已經說過了。)
 나는 이미 말했다.
 b. 我來過歇者。(土 p28) (我來過了。)
 내가 왔었다.
 c. 十二點鐘敲過哉。(麥 p53) (十二點鐘敲過了。)
 12시의 종소리가 울렸다.
 d. 第個人我記得前頭會着歇。(麥 p53) (這個人我記得之前見過的。)⁴⁾
 이 사람은 내가 전에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 (15) a. 城里頭去過歇否?(麥 p62) (城里去過嗎?)
 시내에 가 본 적이 있어?
 b. 第個書我亦讀過歇。(麥 p50) (這個書我也讀過的。)
 이 책은 나도 읽은 적이 있다.
 c. 文章我亦做過歇。(麥 p50) (文章我也寫過。)
 글도 내가 쓴 적이 있다.
 d. 從來弗會見歇。(松 P28) (從來沒有見過。)
 여태껏 본 적이 없다.

钱乃荣은 예문(14) 중의 ‘过歇’, ‘过’, ‘歇’는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고, 예문(15) 중의 ‘过歇’, ‘歇’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나타내며, 예문(14d)는 동작의 완성 의미가 아니라 경험을 의미하고, 예문(15)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의문문 형식은 ‘V+过/过歇/歇+否?’이고, 부정 형식은 ‘弗會+V+过’형식인데 예를 들어 예문(15d) 중 ‘弗會見歇(没有见过)’같

4) 钱乃荣 (2014:198) 재인용.
 1862, John Macgowan(麥高溫), A Collection of Phrases in the Shanghai Dialect. Shanghai: Presbyterian Mission Press.(약칭:“麥”)
 1908, T’ou-Wo Tse-Né 土話指南, Boussole du Langage Mandarin. Traduite et Romanisée en Dialecte de Chang-hai. 上海土山灣慈母堂。(初版 1889)(약칭:“土”)
 1883, Lecones ou Exercices de Langue Chinoise Dialecte de Song-Kiang. Zi-Ka-Wei, Impeimerie de La Mission Cathololique, a L’orphelinat de Tou-Sè-Vè.(약칭:“松”)

은 것이다.

钱乃荣의 ‘경험’과 ‘완성’을 뜻하는 ‘過’류사를 모두 ‘경험상’라고 부르는 방법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표준어 같은 ‘过₁’, ‘过₂’로 나누면 하나는 ‘동상보어’, 다른 하나는 ‘경험상 상표지’로 구분해 더욱 또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하이방언 ‘過’류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土话指南》(1908[1889])에 나온 ‘過’류사를 관찰해 보았다. 책 전체에서 ‘過’류사가 모두 52번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중 ‘V+过’ 13번, ‘V+歇’ 16번, ‘V+过歇’ 23번이 있었고, ‘V+歇过’의 용법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출현 빈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처음에는 상하이 경험상 두 글자의 ‘过歇’가 가장 많이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사용상의 편리함 때문에 한 글자도 생략되었다. 52개 예문에서 4개 문장 중의 ‘过’만이 보어의 용법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험상의 용법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이는 현대 중국어 표준어의 ‘過’와 유사하며, 경험상의 용법은 ‘過’의 가장 기본적인 어법적 특징이다.

또 ‘過’ 앞에 나타나는 52개 동사 중 46개가 단음절어이고 6개는 비 단음절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단음절은 활동동사를 위주로 하며, 비 단음절어는 각각 ‘荣任’, ‘看见’, ‘小心’, ‘揩干净’, ‘相帮’, ‘出来’ 등의 완수동사다. 52개 용례 중, 단음절 활동동사인 ‘做’는 ‘过’, ‘歇’, ‘过歇’와 각각 조합할 수 있으며, ‘做过’, ‘做歇’, ‘做过歇’ 형식을 구성하고, 활동동사인 ‘卖’와 ‘去’가 각각 ‘歇’, ‘过歇’와 조합될 수 있으며, 정태동사인 ‘当’, ‘会’, ‘有’도 ‘歇’, ‘过歇’앞에 출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문법적 특징들은 현대 중국어 표준어의 상황과 비교적 유사하다. 다음으로 현대 상하이방언에서 경험상의 표현 양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3.2.2 현대 상하이방언의 경험상

19세기 상하이방언에서 경험을 표시한 상표기는 ‘过’, ‘歇’, ‘过歇’등의 형식이었으나, 현재의 상하이방언에는 ‘过’의 용법만 남아 있을 뿐, ‘歇’, ‘过歇’는 모두 도태되었는데, 이것은 상하이방언이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기존의 상하이방언의 회화교재 몇 권을 찾아보니 ‘V+过’ 용례가 많지 않았고, 徐世利(2014[2009])에서 4개, 丁迪蒙(2013[2004])에서 5개, 钱乃荣(2012)에서 5개를 발견했다. 이는 들면 다음과 같다.

- (16) a. 伊從來嘸沒吃去過, 所以啥地方去全歡喜咯。
(她從來沒有出去過, 所以什麼地方都喜歡的。) (徐世利 2014:124)
그녀는 여태껏 밖에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좋아한다.
- b. 搵只葱油鯧魚儂吃過伐?
(這個葱油鯧魚你吃過嗎?) (丁迪蒙 2013:161)
이 충유병어는 먹어 본 적이 있어?
- c. 六个瞎子, 從來嘸沒看見過大象。
(六个瞎子, 從來沒有看見過大象。) (錢乃榮 2012:89)
여섯 명의 장님들은 지금까지 코끼리를 본 적이 없다.
- d. 我吃過个苦頭, 十日八夜講勿盡。
(我吃過的苦頭, 十天八夜也講不完。) (錢乃榮 2012:150)
내가 겪은 고충은 팔박 십일도 다 말할 수 없다.

여기서 ‘过’는 모두 경험의미를 나타내는 ‘过₂’이다. 동사도 단음절의 활동 동사 위주로 한다. 예를 들면 ‘去, 吃, 打, 做’등이고, 간혹 쌍음절의 완수동사도 있다. 이들 구조의 의문 형태는 ‘V+

过+伐?’로 예를 들어(16b) 중의 ‘吃过伐?’이다. 부정 형식은 ‘**冇没+V+过**’인데, 예를 들어 (16c)에서는 ‘**冇没看见过(没看见过)**’이다. 이 14개 예문 중 4개 문구의 ‘V+過’는 동상보어 ‘过₁’이고, 나머지 10개 문구는 ‘过₂’다. 이 네 개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7) a. 黃歷**看過**了, 是黃道吉日。 (徐世利 2014:140)
 황력을 봤는데 길일이다.
 b. 昨日談个辭椿事体儂**考慮過**了伐? (丁迪蒙 2013:38)
 (昨天談的這椿事情考慮過了嗎?)
 어제 이야기한 이 일은 생각해 봤어?
 c. 昨天夜里向**打過**電話了。 (丁迪蒙 2013:60)
 (昨天夜里打過電話了。)
 어젯밤에 전화했다.
 d. 像辭只色拉, 阿拉上海人自家**創造過**了, 儂吃呀。(丁迪蒙 2013:159)
 (比如這個色拉, 我們上海人自家創造過了, 你吃呀。)
 이 샐러드를 예를 들면, 우리 상하이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으니 네가 먹 어봐.

이 네 가지 예문 중의 ‘過’는 모두 상표지인 ‘了₁’ 또는 문말의 ‘了₂’와 결합해서 동사 ‘看,’ ‘考慮,’ ‘打,’ ‘創造’뒤에 출현하며, 앞 동작의 완성의미를 나타내는 점은 표준어와 비슷하다. 또한 ‘過’는 동상보어로서 이 구문의 부정형식은 ‘**没+V+过**’가 아닌 ‘**还没+V**’ 혹은 ‘**还没有**’이어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18) a: 黃歷看**過了**伐?(黃歷看過了嗎?) 황력 봤어?
 b: 還**無**沒看(還沒看)/還**無**沒(還沒有). 아직 못 봤다 -----過1
 (19) a. 黃歷看**過**伐?(黃歷看過嗎?) 황력 본 적이 있어?
 b: **無**看過(沒看過). 본 적 없다. -----過2

위의 예(18)에서 ‘過’는 ‘过₁’이고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동상보어의 ‘過’이다. 예(19)에서 ‘過’는 ‘過₂’로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 형식이 다르다. 이것은 ‘过₁’과 ‘過₂’의 다른 점이고, 표준어의 ‘過’도 마찬가지다.

3.3 상하이방언의 중행상(重行体) ‘過₃’

앞의 글에서 언급한 ‘过₁’과 ‘過₂’외에 상하이방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過’를 발견하였다. 기존에 있던 ‘过₁’, ‘過₂’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過’를 ‘過₃’라고 칭하겠다. 예는 다음과 같다.

- (20) a. 儂辭次寫勒勿好, 脫我重新**寫過**。(你這次寫得不好, 重新寫。)
 너는 이번에 잘 쓰지 못했으니 다시 써라.
 b. 伊台步走勒勿對, 讓伊重新**走過**。(她台步走得不對, 讓重新走。)
 그녀가 태보하는 것이 잘못됐으니 다시 가라고 해라.
 c. 簿子落脫勒, 我又**寫過**一遍。(本子丟了, 我又寫了一遍。)
 공책을 잃어버려서 나는 또 한 번 썼다.
 (钱乃荣 1997:212)

여기 있는 ‘写过’, ‘走过’, ‘写过’는 앞의 구절의 ‘不好’, ‘不对’, ‘丢了’ 때문에 동작 ‘走’와 ‘写’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세 개의 절은 각각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하며 앞부분은 원인을 나타낸다. 세 예문 중 ‘V+過’ 앞에 동작의 재 진행을 뜻하는 부사 ‘重新’, ‘又’ 등이 있다. 钱乃荣(1997:212)은 이런 재 진행을 뜻하는 ‘V+過’ 구도를 중행상(重行貌)라고 표현했다. 이런 용법은 19세기의 상하이방언 문자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주(苏州)방언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법이 발견되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1) a. 畚篇稿子俚勿称心, 我只好再寫過一遍。
 (這篇稿子他不称心, 我只好再寫了一遍。)
 이 원고를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이 다시 한 번 썼다.
 b. 茶淡脫哉, 重新泡過一杯吧。
 (茶淡了, 重新泡一杯吧。)
 차가 싱거우니 다시 한 잔 담가라.

(劉丹青 1996:28)⁵⁾

예(21) 중 ‘写过’, ‘泡过’도 재진행의 뜻을 나타내며, ‘V+过’ 앞에서도 재 진행을 뜻하는 부사 ‘重新’, ‘再’가 있고, ‘V+过’라는 구절도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해 앞부분에 각각 원인을 표시하는데, 소주(苏州)방언의 용법은 상하이방언과 매우 유사하다.

溫昌衍(2020:437)은 중국어 방언에서 동작 재 진행을 뜻하는 중행상(重行体) 조사인 ‘過’를 각 가방언(客家话), 오방언(吴语), 상방언(湘语), 감방언(贛语), 월방언(粵语), 민방언(闽语), 평화(平话), 서남관화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아래 표를 보자.

중행상‘過’가 여러 방언에서의 양상⁶⁾

지역	예 문	구조
客家 广东梅县	我同你拿过一隻 我给你重新拿一个。 내가 너에게 다시 하나 가져다 주겠다. 解盘唔算, 来过这局不算, 重来。 이번 판은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	V+过
广东惠东	头先食个荔果无几好, 阿哥你食过(一)只(荔果)刚才 吃的荔枝不是很好, 哥哥你另外再吃一颗(荔枝)。 방금 먹은 여 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오빠는 따로 한 알을 더 먹어 라.	V+过
广东丰顺	写倒恁差斗, 翻写过翻写过 写得这么糟, 重新写过重新写 过。 이렇게 엉망으로 썼는데 다시 써라. 拿过一张来重新拿一张来。 다시 한 장 가져와라.	翻+V+过
福建连城	换过一隻 另换一隻。 다른 한 짝으로 바꿔라。 我合尔捏过一个 我给你重拿一个。 내가 다시 하나 가져다 줄게.	V+过
福建长汀	汝盘棋唔算, 来过这盘棋不算, 重来。 이번 판은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 衫裤做得唔合身, 做过衣服做得不合身, 重做。 옷을 잘못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라.	V+过

5) 溫昌衍(2020:438) 재인용.

6) 이 표는 溫昌衍(2020)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江西西康	写得特过潦草，你要写过写得潦草了，你要重新写。 글씨를 너무 휘갈겨 썼으니, 너는 다시 써야 한다. 唻听清，就喊渠话过一遍没有听清，就叫他再说一遍。 똑똑히 듣지 못했으니,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하라고 해라	V+过
江西石城 高田话	底盘唔算，来过这局不算，重来。 이번 판은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 重新做过重新做。 다시 해라.	重新+V+过
台湾 苗栗客家	我同你拿过一隻我给你重拿一个。 내가 다시 하나 가져다 줄게. 写到忒过老草，你爱写过写得潦草了，你要重新写。 글씨를 너무 휘갈겨 썼으니, 너는 다시 써야 한다.	V+过
台湾 东势客家	我同你拿过我给你重拿一个 做过重做！(强硬命令口气) 내가 다시 하나 가져다 줄게. 다시 해라.	V+过
吴语 浙江金华	我听弗灵清，依再讲遍过我听不清楚，你再讲一遍。 잘 안 들리니 다시 한번 말해라. 我今日儿胖弗着渠，明朝再来过我今天碰不到他，明天再来。 나는 오늘 그를 만날 수 없으니 내일 다시 오겠다	再+V+过
湘语长沙	咯次选举不作数，就选过一次重新选一次。 이번 선거는 무효로 하고 다시 한 번 선거한다. 那件衣不合身就买过一件重新买一件。 그 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새로 샀다.	V+过
赣语南昌	菜都一起冷泼了，我去拿渠热过一次。 요리가 이미 식었으니 내가 가지고 가서 한번 데울게. 画贴歪了，拿渠贴过一下画贴歪了，拿去重贴一次。 그림이 비뚤어졌으니 가져다가 다시 붙여라.	V+过
赣语丰城	喊过一个人来另叫一个人来。 买过一隻上海表另买一块上海表。 따로 한 사람을 불러오라. 상해 시계를 따로 사다	V+过
闽语建瓯	衣裳未曾洗俵俐，让洗过衣服没洗干净，要重洗。 옷을 깨끗이 빨지 못했으니, 다시 세탁해야 한다. 话错掉话(得)过说错了重说。 네가 잘못 말했으니 다시 말해라.	V+过
粤语广州	你唔满意下次来过你不满意下次再来。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다시 와라. 呢张画画得太差，后日画过一张这张画画得太差，后天再画一张。 이 그림은 너무 못 그렸으니 모레 다시 한 장 그려라.	V+过
粤语东莞	呢个唔好，搵过重拿一个畀你。 攞翻去 做过重做。 이것은 좋지 않고, 다시 하나 가져다 줄게. 다시 해라.	V+过
平话南宁	亚杯茶淡了呃，我再泡过那杯茶淡了，我再泡一杯。 그 잔의 차가 싱거우니, 다시 한 잔 우려내겠다.	再+V+过
四川成都	做得不合格，做过就是了。 说得不对头，重新说过。 잘못하면 다시 하면 된다. 말이 틀렸으니 다시 말해라	V+过
四川资中	你这个作业错的太多了，重新写过重新再写。 네 숙제는 너무 많이 틀렸으니 다시 써라.	重新+V+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행상 ‘過’는 중국 남부 방언에 널리 존재하며, 대부분 지역(예를 들어 粤语, 闽语, 湘语, 赣语, 客家语) 등에서는 ‘過’앞에 동작의 재 진행을 의미하는 부사 ‘再’, ‘重新’, ‘另外’ 등을 필요하지 않다. ‘過’은 부사의 도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재의

(再義)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문법화 정도가 이미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서로 다른 방언의 'V+过'가 종속절에 출현하면 일반적으로 문장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부분에서 원인을 나타낸다. 단문일 경우 원인을 나타내는 앞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생략부분이 존재한다.

중행상 '過₃'의 출처에 대해 陈小荷(2012:82)는 '어원을 찾을 수 없다'(어원무고 語源無考)고 하였고, 陈前瑞·张曼(2015:81)은 중행상(重行体) '過'는 완결상 '過'에서 유래해 완결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의미에서 중행상까지 환유작용을 하였다고 봤다. 温昌衍(2020:442)은 '补偿(보상)'과 '修正(수정)'의 의미가 '過'에게 '중행(重行)'의 의미를 부여하고, '重新'와 같은 부사가 '過'에게 '중행(重行)'의 의미를 강화해주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過₃'의 이러한 '중행(重行)'의 의미는 사실 '過'라는 글자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過'는 원래 하나의 방향동사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그리고 중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重新', '再'의 의미 침투영향이 있기 때문에, '過'는 서서히 중행(重行) 의미를 띄어갔다.

'중행(重行)'의 의미가 들어간 'V過'는 점점 부사 '重新', '再', '又'에서 '중행(重行)'의 의미를 받아서 그 의미가 '過'로 옮겨가고, 결국 'V過'는 이런 부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중행(重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남측 지역에서 단독으로 'V過'만 해도 '중행(重行)'를 표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중국어에도 '重新V过'라는 구조가 적지 않고, BCC에서 '重新V过'라는 문구는 1816개로 확인됐는데, 이 중 '重新来过'가 876개(48%), '重新买过'가 74개(4%), '重新写过'가 52개(2.8%), 기타 '重新看过', '重新走过'가 있다. 温昌衍(2020:443)은 '過'의 이 용법이 고대 중국어나 근대 중국어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 방언(주로 남방 방언)의 혁신으로 보고 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며, 아마도 현대중국어 표준어의 사용도 남방 방언의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重新看过'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안 되는 동사 한두 개만 사용하다가 점차 다른 동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동사의 조합 형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온다.

4. 결론

본문에서 상하이방언의 완전상 표지 '仔'와 '过'의 유래와 의미 기능, 그리고 표준어의 완료상 표지인 '了', 표준어 경험상 표지 '过'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仔'와 '了'는 문장을 구성하는 조건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들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상하이방언의 '仔'가 완료상 표지이자 지속상 표지라는 점이다. 이 밖에 '仔'는 동사와 방향보어사이에 존재할 수 있지만 '了'는 안 된다. 표준어의 '了'는 동사보어로 把자구문에 출현할 수 있지만 상하이방언의 '仔'는 이 기능이 없다. 또한, '仔'는 어기사로 문미에 출현할 수 있지만 표준어의 '了₂'와 크게 다르다.

상하이방언의 경험상 표지는 처음에는 '过', '过歇'와 '歇'등의 몇 가지 형식이 있었으나, 그 후에 아마도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표준어와 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경험상 표지는 '过' 한 개만 남았다. 상하이방언의 상표지 '过'는 표준어 '过'와 같이 동사 뒤에 위치하여 동

상보어(‘ $过_1$ ’)와 경험상 표지(‘ $过_2$ ’)를 할 수 있으며, 동상보어로 삼을 때는 뒤에 상표지 ‘ $了_1$ ’을 붙일 수 있지만 상표지 ‘ $過_2$ ’는 안 된다. 또한 ‘ $过_1$ ’을 부사 ‘已经’와 조합하여 ‘已经……(过)了’를 구성할 수 있고 ‘ $过_2$ ’는 부사 ‘曾经’과 조합되어 ‘曾经…… $过$ ’를 형성하여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상하이방언의 ‘ $过$ ’와 표준어의 ‘ $过$ ’가 가장 큰 차이점은 남방 대부분의 방언과 마찬가지로 상하이방언에는 중형상(重行)이 있다는 것인데, 이 ‘ $過_3$ ’은 동사에 더해져 어떤 동작을 다시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앞에 반드시 중복을 나타내는 부사인 ‘重新’, ‘又’, ‘再’ 등이 나와야 한다. 표준어에도 ‘重新 V 过’라는 구조가 있지만 이 역시 남방 방언의 영향일 텐데 표준어에는 이런 현식의 ‘ $過_3$ ’이 흔치 않다.

표준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하이방언의 ‘ $仔$ ’가 점차 ‘ $勒$ ’자와 ‘ $辣海$ ’로 대체되나 ‘ $勒$ ’와 ‘ $了$ ’는 통사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기존의 상하이방언의 경험상 표지 ‘ $歇$ ’와 ‘ $过歇$ ’이 사라진 것은 상하이방언이 점차 표준어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언어 발전의 큰 추세이며, 강한 언어는 결국 약자 언어에 동화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參考文獻 >

- 최규발·정지수(2007), <한중 경험상 대조분석>, 《中國言語研究》, 2007 (12)
- 장옥방(2017), 《현대 上海話 처치식과 피동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6
- 艾約瑟(Edkins, J.) 著, 錢乃榮等 譯(2011), 《上海方言口語語法》, 上海: 外語教學與研究
- 曹種橙 等譯(1896), 《滬語指南》, 上海: 上海華美書館.
- 陳前瑞·張曼(2015), <漢語經歷體標記“過”的演變路徑>, 《漢語史研究集刊》第十九輯, 成都: 四川巴蜀書社有限公司.
- 陳小荷(2012), 《丰城贛方言語法研究》,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 丁迪蒙(2013[2004]), 《學說上海話》, 上海: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 龔千炎(1995), 《漢語的時相 時制 時態》, 北京: 商務印書館.
- 孔令達(1986b), <關於動態助詞“過 1 ”和“過 2 ”>, 《中國語文》, 1986 (4)
- 李小凡(1998), <蘇州方言的體貌研究>, 《方言》, 1998 (3) 198-210.
- 劉月華(2001[2003]),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 _____(1988), <動態助詞“過 1 ”“過 2 ”比較研究>, 《語文研究》, 1988 (1) 6-16.
- 李 妍(2006), 《漢語完成體“過”研究》, 北京語言大學碩士畢業論文. 2006.6
- 林新年(2006), 《《祖堂集》動態助詞研究》, 廈門大學博士畢業論文. 2006.
- 梅祖麟(2000[1989]), 《梅祖麟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出版社.
- 朴素娥(2015), 《一百多年來吳語句法類型演變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錢乃榮(1992), 《當代吳語研究》,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_____(1997), 《上海話語法》,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_____(2007), 《上海話大辭典》, 上海: 上海辭典出版社.
- _____(2012), 《小學生學說上海話》,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 _____(2014), 《西方傳教士上海方言著作研究》,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 石汝杰(2009), 《吳語文獻資料研究》, 日本: 好文出版.
- 石毓智(1992), <論現代漢語的體范疇>, 《中國社會科學》, 1992 (6)
- 孫英杰(2006), 《現代漢語體系系統研究》, 北京語言大學博士畢業論文. 2006.6

- 无名氏 (1908[1889]), 《土話指南》, 上海: 上海土山湾慈母堂印刷.
- 王 力 (2013[1989]), 《漢語語法史》, 北京: 商務印書館.
- 溫昌衍(2020), <漢語方言重行体“過”>, 《方言》, 2020 (4) 437-444.
- 許寶華·湯珍珠(1988), 《上海市區方言志》,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徐烈炯·邵敬敏(1998), 《上海方言語法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徐世利(2014[2009]), 《標準上海話自學法》,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趙金銘(1979), <敦煌變文所見的“了”和“着”>, 《中國語文》, 1979 (1) 65-69
- 趙元任(1968), 《中國話的文法》, 香港: 中文大學出版公司.
- 朱德熙(2012[1982]),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 左思民(2014), 《語言規律探索集》,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 Chao, Yuen Ren (趙元任)(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中譯本: 《漢語口語語法》, 呂叔湘譯, 北京: 商務印書館)

關鍵詞/Key words: 완전상, 완료상, 경험상, *le*(了), *guo*(過), *zai*(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격조사' 오용분석 : 「が(GA)」 「を(WO)」 「で(DE)」 「に(NI)」를 중심으로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用分析 : 「が」 「を」 「で」 「に」を中心に)

발표자: 박사과정 김소희

공동연구자: 석사과정 강준하, 스즈에 유카리, 윤선용

1. 발표목적 - 공동연구 모색

본 우수성과 발표의 목적은 중일어문학과와 각 연구실 간 '연구 교류 확대'의 장을 모색하여 트랜스 동아시아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2021년 1학기에 연구성과를 얻은 공동연구와 그 방법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공동연구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ppt발표예정)

2. 연구개요 -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격조사' 오용분석」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가 구어(口語)에서 범하는 일본어 격조사(格助詞)의 오용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 코퍼스에 수록된 격조사 「が」「を」「で」「に」의 오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일본어 학습자의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 인터뷰 데이터를 문자화한 'KY 코퍼스'의 웹 공개판으로, 태그 검색 기능을 이용해 '오용'으로 분류된 예시를 찾아 그 의미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결과, 설문 조사와 보충 시험, 작문 등을 분석 자료로 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반복적 자기수정(自己修正)을 통한 실수(mistake)의 정정 등과 같은 학습자의 경향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법적 측면과 교육적 관점에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용의 원인 및 경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오용례의 산출에는 모어인 한국어로부터의 영향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의 복잡함, 주어 등의 생략에 따른 혼동, 서술어와의 호응, 학습자 전략, 과잉의 일반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었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오용 산출이 이루어지는 이유나 과정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었다. 향후 분석 자료의 양적 보완, 원본 데이터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한 오용 판단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한 다각적인 고찰·연구를 통해 일본어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격조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학습법 및 교수법의 제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발표 시 시간관계상 대부분 생략 가능성 有)

3. 연구방법 - 일본어학+일본어교육+중일지역비교문화 공동연구

3.1. 연구원(4인)

일본어교육전공 석사과정의 강준하, 스즈에 유카리 학형, 중일지역비교문화전공 석사과정의 윤선용 학형, 그리고 일본어학전공 박사과정의 발표자 본인을 포함한 4인 공동연구이다.

3.2. 연구기간(약 7개월(2020년 10월 말~2021년 5월 말))

2020년 2학기 수업(계량일본어학연습2-조영남교수님)에서 공동연구원이 꾸려졌고, 당해 10월 말 연구자 간 회의를 통해 연구주제를 정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매주 1~2회 정도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16회의 회의를 통해 선행연구검토, 연구방법설정, 고찰결과 등을 얻어 12월 중순에 수업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24회의 회의를 거쳐 학회발표와 학술지게재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약 7개월 동안의 공동회의를 통한 총 40회의 협동(합동)연구를 진행하였다.

3.3. 연구방법

(1) 연구주제 - ‘取り立て(Toritatae) 조사(助詞/助辭)’를 중심으로 연구 중인 본인과, ‘언어 전이(轉移)’, ‘학습자의 경어(敬語) 사용’ 등이 연구 키워드인 석사과정생 그리고 일본어 학습자이기도 한 연구원 모두를 아우르는 연구주제에 대해 고민한 끝에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격조사’ 오용분석」이라는 주제를 정하였다.

(2) 선행연구 - ‘일본어학’에서 주로 하는 방법인 가능한 많은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① 무엇에 대해 논하고 있는지, ②인용 가능한 점은 무엇인지, ③재고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인지(비판) 등에 입각하여 검토하였다. (보통 논문의 서론 작성 및 문제제기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하는 학형들이 많다 보니 가장 선배인 발표자 본인이 대거 작성)

(3) 분석방법 - ‘일본어교육’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 학습자 코퍼스의 오용 예문을 이용하였고, 오용의 경향과 그 원인분석 시에는 특히 강준하 학형이 많은 부분 조력하였다.

(4) 고찰방법 - 한국인 학습자가 자주 오용을 보이는 일본어 격조사로 「が」「を」「で」「に」 네 개가 설정되어, 연구자 4인 각각 한 개의 격조사를 맡아 고찰하였다.

* 모든 연구가 일본어로 진행되어 전체적인 일본어 검수 및 결론 작성, 오용 판단의 확인은 원어인 스즈에 유카리 학형이 도맡았다. 영어 요지문 작성은 윤선용 학형이 담당하였다. 그 외 모든 부분에서 연구자 전원이 각자 맡은 역할에 성실히 임해주었다.

4. 연구성과 - 학회발표, 학술지게재

4.1 발표학회

2021년 2월 6일 ‘한국일본학회’ 101회 ‘한일 65년 체제의 재조명과 제언’ 차세대발표 pp.71-78(8쪽)

4.2 게재학술지

2021년 5월 31일 『일본학보』 127집 pp.139-169(31쪽)

본 연구자 4인, 일본어학전공 박사과정 김소희, 일본어교육학전공 석사과정 강준하, 스즈에 유카리, 중일지역비교문화전공 석사과정 윤선용은 2021년 2월 한국일본학회 주관 국제 학술 발표 대회에서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用分析」라는 테마로 공동 발표

하고, 동년 5월 공동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공동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세부 전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일본어 격조사 오용’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해 고찰하였다. 연구자 4인 모두에

게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연구 주제였지만 연구자의 협연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선행연구 및 오용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오용의 원인 및 제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브레인스토밍, 검토함으로써 한층 양질의 연구가 되었다. 이로써 논문심사에서는 ①쓰기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달리 구어에서 발생하는 격조사의 오용 양상을 살펴본 것에 의의, ②원 데이터인 OPI 학습자가 레벨별로 분류되었고 각 레벨별 특징을 알 수 있어 일본어 교육 측면에서 교수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연구, ③KY 코퍼스를 사용한 이유,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독창성 부분이 서술되어 학술적 위치와 가치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각 격조사를 분석한 부분에서 선행논문에서의 결과와의 차이점과 그 원인이 뚜렷하게 고찰되어 있어 논문의 가치를 더 한다는 등의 호평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연구자 4인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였고, 타 연구실의 연구내용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과정과 전공은 다르지만, 박사과정 선배로서 석사과정 후배들에게 소논문작성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고,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았다. 앞으로는 중일 양과의 공동연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연구제안 - 일어일문+중어중문 공동연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격조사’ 오용분석」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하여 ‘한·중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격조사 오용에 대한 비교·대조’,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중국어 학습자의 언어 전이 비교’, ‘중·일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오용에 관한 연구’ 등 일본어학·교육 전공자와 중국어학·교육 전공자의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또한 일본문학·문화 연구실과 중국문학·문화 연구실의 공동연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어학·교육·문학·문화 등의 경계를 허무는 학제 간 연구주제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루쉰의 문학 현대화 책략 연구

- 루쉰 작품에 나타난 귀신 이미지를 예로 들어

황미림

目次

1. 서론
2. '현대화'에 관한 토론
3. 루쉰이 '귀신'의 소재를 선택한 이유
4. 루쉰의 문학 현대화에 대한 책략
5. 결론

1. 서론

루쉰은 '중국 현대 문학의 정초자'로 일컬어졌다. 이 칭호가 붙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루쉰이 중국문학사에서 최초의 백화문 소설인 <광인일기>를 창작했기 때문이다. 문장어형식의 전환은 물론 문학작품이 고대에서 현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징표이지만 결코 이뿐만이 아니다. 학술계에서는 루쉰의 작품 중 나타난 현대성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루쉰의 사상,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 거시적인 측면에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혹은 루쉰의 어떤 문체나 어떤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서만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루쉰의 붓 아래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나 어떤 소재를 접점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루쉰의 작품들이 비록 대표적인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중에서 가장 모순적인 것은 그 작품 중 있는 '귀신'이라는 이미지이다. 루쉰은 1924년 9월 24일 이병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내 영혼 속에 독기와 '귀기'(鬼氣)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를 극도로 미워하지만, 그를 제거할 수 없다.”¹⁾ 그런데 1926년 11월 11일, 루쉰은 <《무덤》 뒤에 쓰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내 쫓고, 그때에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설령 그가 올빼미, 뱀, 귀신, 괴물 등 추악한 무리라 하더라도 내 친구이며, 이야말로 진정 내 친구가 아닐까 하고 가끔 생각한다.”²⁾ 루쉰은 그것을 없애고 싶으면서도 그것을 진정한 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귀신'으로, 주로 아래 작품에서 등장한다.(창작시간순)

1) 루쉰(2005), 「240924致李秉中」, 『魯迅全集』, 第1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453.

원문: 我自己總覺得我的靈魂里有毒氣和鬼氣,我極憎惡他,想除去他,而不能。

2) 루쉰(2005), 「寫在『墳』後面」, 『墳』, 『魯迅全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300.

원문: 我有時也想像就此驅除旁人,到那時還不唾棄我的,即使是臭蛇鬼怪,也是我的朋友,這才真是我的朋友。

창작시 간	제목	출처	'귀신'이 등장하는 방식
1924	축복	방황	상립수는 귀신에 대한 상상
1925	죽은 불	야초	'죽은 불' 이미지로 등장하다
1925	잃어버린 좋은 지옥	야초	'마귀'와 '귀혼'의 모습으로 등장하다
1925	빛돌 글	야초	'유혼'과 '시체'의 형상으로 등장하다
1925	죽은 뒤	야초	'유혼'과 '시체'의 형상으로 등장하다
1926	무상	아침 꽃 저녁에 줍다	'무상'귀
1927	검을 버린 이야기	새로 쓴 옛날이야기	'검은 사람'과 '미간척'이 사후에 '귀신'이 되다
1935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	새로 쓴 옛날이야기	'귀혼'의 모습으로 등장하다
1936	여조	차개정잡문 말편	'여조'귀

이 밖에도 수많은 '귀신'에 대한 평론이 루쉰의 잡문과 편지, 지인 간의 대화 속에 산재해 있다. 위의 표에서 '귀신'이라는 이미지는 루쉰의 전체 창작 생애를 관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창작을 시작할 때나 죽기 한 달 전이나 루쉰은 여전히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귀신'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현대에 봉건적 미신 찌꺼기로 보이는 '귀신'이 왜 신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봉건례교를 반대하는 소설 <광인일기>를 쓴 루쉰에게 주목받았을까? 이에 대해 적지 않은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는데, 비교적 저명한 것이 아래와 같다: 중국 학자 첸리쑤(錢理群)은 이 화두를 미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루쉰의 귀신에 대한 서사는 공간과 신분 제한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 체험이자 인간사회와 이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³⁾ 학자 손욱(孫郁)은 루쉰의 문학 세계에서의 '귀' 서사를 루쉰의 내재된 정신 세계에서의 '귀기'(鬼氣)와 연결시켜, '귀기'로부터 입수하여 루쉰의 정신 세계에서의 '혈기'(血氣)와 '정기'(正氣)를 서술하였다.⁴⁾ 학자 왕휘(汪暉)는 루쉰이 쓴 귀신을 긍정적이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본다.⁵⁾ 학자 하제안(夏濟安)은 루쉰의 작품 속 '귀신'의 형상과 루쉰이 말한 자신이 가진 '귀기'를 연결시켜 '어두운 면'을 점점으로 분석하면서 루쉰 소설 속 '귀신'에 대한 서사가 "공포와 유머, 구원에 대한 희망"을 존재한다고 보았다.⁶⁾ 한국과 일본에도 루쉰이 쓴 '귀신'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학자 丸尾常喜는 루쉰 문학의 세계 속의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루쉰과 중국의 전통 민속과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고, 루쉰의 사상과 문학작품은 모두 "인간과 귀신의 갈등"의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⁷⁾ 한국 학자 유세중은 루쉰이 창작한 <여조>와 <무상>을 통해 '귀신'과 '민중' 양자 사이의 관계를

3) 錢理群(2003), 「魯迅筆下的兩個鬼: 讀「無常」、「女吊」及其他」, 『魯迅作品十五講』,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p.12-30.

4) 孫郁(1998), 「鬼氣·血氣·正氣」, 『魯迅研究月刊』, 1998年第3期, pp.3-5.

5) 汪暉(2008), 「魯迅與向下超越: 『反抗絕望』跋」, 『中國文化』, 第27期, pp.144-149.

6) 夏濟安, 萬芷均·陳琦·裴凡慧·陶磊·李俐等合譯(2015), 『黑暗的閨門: 中國左翼文學運動研究』,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pp.45-57.

7) 丸尾常喜, 秦弓譯(2010), 『“人”與“鬼”的糾葛: 魯迅小說論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p.238-243.

분석하였다. 그는 루쉰 작품 속 '귀계'(鬼界)는 대중이 발언과 복수의 공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⁸⁾ 학자인 박자영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루쉰이 서사 속에서 귀신들과 하층민을 공존시키고, 귀신이 출몰할 때마다 기존의 질서와 논리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시간관과 가치관을 열게 했다고 분석한다.⁹⁾ 이들 학자들은 루쉰이 쓴 '귀신'에 대해 사상적, 심리적, 사회적 효능적 관점에서 면밀히 연구하고 있지만 루쉰이 어떻게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중국 현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루쉰이 살았던 시대는 중국이 봉건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모한 시대였고, 루쉰의 대다수 작품에서도 현대성과 사회변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루쉰이 현대성에 대한 사고에 관한 연구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중국 학자 청카이(程凱)도 이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루쉰이 민간신앙을 '근대문명'을 비판하는 참고로 삼았다고 생각한다.¹⁰⁾ 한국학자 박자영은 루쉰 작품 속에 나타난 시간관에 대해 연구한다. 박자영 학자는 「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녀는 루쉰이 전통적인 선형적 시간관을 타파하고 독자로 하여금 '현실'과 '역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생각한다.¹¹⁾ 이러한 연구는 루쉰의 문학적 현대성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루쉰의 작품에 어떤 문학적 책략, 즉 어떤 문학적 기법으로 자신의 현대성에 대한 사고 과정과 결과를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루쉰이 쓴 '귀신'은 따지고 보면, 문학 범주에 속하는 '귀신'이다. 노신이 태어난 19세기 말, 서양 문학 이론계는 어떻게 문학을 다른 실용적 문체와 구별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문학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지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그가 중시하는 '귀신'의 이미지를 민속·문화적 '귀신'과 구별해 문학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도 작가 루쉰이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다.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 국가사회의 현대화 전환의 열기에 비추어 "자취관의 명령을 따라", "이절 수 없이 몇 마디 고향을 내지르게 된다. 적막 속을 질주하는 용사들에게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도록 얼마간 위안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다."¹²⁾는 목적 외에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것인가는 현대화 사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고향을 통해 대중이 자신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루쉰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조형물을 감상할 때 창작자가 사용하는 조각 기법에도 관심을 두면서, 또 이를 통해 창작자가 표현하려는 사상적 감정을 느끼듯이, 루쉰은 중국 현대화 사회 건설에 대해 어떤 포부와 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또 어떤 문학 창작 책략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작품 속에 표현하는지, 왜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표현의 매개체로 선택했는지,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 사회의 근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연구 핵심이 될 것이다.

2. '현대화'에 관한 토론

8) 유세종(2000), 「루쉰의 귀신과 민중:『태평시대의 권신노래』를 읽기 위하여」, 『중국현대문학』, 19호, pp.283-300.

9) 박자영(2015), 「루쉰이 불러낸 귀신들: 시선과 질문들」, 『중국어문학논집』, 93호, pp.201-227.

10) 程凱(2004), 「“招魂”、“鬼氣”與復仇:論魯迅的鬼神世界」, 『魯迅研究月刊』, 第6期, pp.26-34.

11) 박자영(2015), 「루쉰의 귀신, 벤야민의 천사」, 『중국현대문학』, 74호, pp.65-90.

12) 魯迅(2005), 「自序」, 『吶喊』, 『魯迅全集』, 第1卷, 北京:人民文学出版社, p.441.

원문: 吶喊幾聲, 聊以慰藉那在寂寞裡奔馳的猛士

루쉰의 문학 현대화 책략을 언급한 이상 '현대화'의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현대화'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아직 정설이 없다. '현대화'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본고는 동아시아와 유럽의 현대화 과정의 역사와 일부 학자들의 '현대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현대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했다. 일본 학자 竹内好는 <근대란 무엇인가: 중국과 일본을 예로 들자>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양의 근대화는 유럽 강제한 결과이다.……근대란 봉건 사회에서 자아를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유럽이 얻은 자아인식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자유 자본의 발생이고, 인간 측면에서는 독립적이고 평등한 개체 인격의 성립이다)”¹³⁾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의 방면'에서 竹内好의 관점을 가장 잘 입증한 역사적 사건은 '신문화 운동'이다. 서양의 신식 교육을 받은 천독수(陳獨秀)가 1915년 그가 편집장을 맡은 《신청년(新青年)》에 글을 올렸다. 그는 중국에서 '민주'와 '과학'을 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봉건문화를 반대했다. 이를 통해 '신문화운동'의 서막이 열리기도 했다. '신문화운동'은 '민주' '과학' 등 유럽에서 생산된 개념을 중국에 도입하고, '천부인권'(天賦人權)' '인간중심' 등의 구호를 강조한다. 이들이 새로운 관념들은 당시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루쉰의 첫 번째 백화로 쓴 소설인 광인일기는 바로 《신청년》의 초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1918년 5월호에 발표되었다. 《외침》의 <자서>에서 루쉰이 언급한 '장령을 청취'는 《신청년》의 간행 취지에 따라 작문하는 일을 가리킨다. 루쉰이 비록 '장령을 듣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명령'도 본인이 인정하고 추구한 이상이었다. 이미 일본에서 유학할 때 루쉰은 중국 사람이 "사람을 인간으로 만드는 생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¹⁴⁾ <청년필독서>라는 글에서, 루쉰은 당시의 청년에게 더욱 명확하게 건의했다: “나는 중국 책은 적게 보거나-혹은 아예 보지 말아야 하며, 외국 책은 많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중국 책에도 세상에 뛰어들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이 들어 있기는 해도, 대부분 비쩍 마른 주검의 낙관이다. 반면 외국 책은 설사 퇴폐적이고 염세적일지라도, 살아 있는 사람의 퇴폐와 염세이다.”¹⁵⁾ 루쉰의 이 말의 중점은 완전히 '活人'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직 살아 있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글을 짓지 못한다는 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는가!”¹⁶⁾ 루쉰이 보기에 새로운 중국문학 분야의 현대성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루쉰이 생각하는 현대문학과 과거 문학의 본질적 차이점 중 하나이며 루쉰이 작품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문에서 竹内好가 말했듯이 동아시아 국가의 근대화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럽의 관념과 제도에 충격을 받아 외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접붙으로 온 것'에 따른 근대화의 뿌리는 당시 중국에 확고하지 않았다. 중국 사회의 근대화가 어떤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지, '중체서용'¹⁷⁾이나, '서체중용'이나, '복고주의'나, '전면 서구화'냐가 당시 중국에선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이로 인해 또 적지 않은 혼란상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

13) 竹内好著, 李冬木等譯(2016), 「何謂近代: 以日本與中國為例」, 『近代的超克』,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pp.256-257.

14) 丸山昇(1965), 『魯迅: その文学と革命』, 『東洋文庫』, 第47卷, 東京: 平凡社, p.61.

15) 魯迅(2005), 「青年必讀書: 『應京報副刊』的征求」, 『華蓋集』, 『魯迅全集』, 第3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12.

원문: 我以為要少或者竟不看中國書, 多看外國書……中國書雖有勸人入世的話, 也多是僵屍的樂觀; 外國書即使是頹唐和厭世的, 但卻是活人的頹唐和厭世。

16) 同上, p.12.

원문: 只要是活人, 不能作文算什麼大不了的事。

17) 중국 윤리와 경학과 사학의 학문을 근본으로 하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응용으로 한다

보편적으로 '물질'이나 '과학'과 같은 인식 개념에 대한 맹신이다. 실제로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이미 같은 종류의 문제는 유럽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물질 기술의 부단한 발전에 고무되어 '역사 진보론'이 프랑스에서 유행하였다. 진보론에 따르면 현대인은 반드시 고대인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장점만 고취하다가 문화적 측면에서 고대와 갈라져 현대인의 정신을 사막화로 초래했다. 20세기 프랑스 현대문학사를 보면 '실존주의'(Existentialism)부터 '부조리극'(Theatre of the Absurd)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의 정신적 공허함과 현대사회의 황당함을 들춰내려는 시도는 무분별한 현대 숭배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에서도 또 다른 '신구논쟁'이 벌어졌다. 독일은 프랑스에서 획일적인 선형역사적 진보관이 득세하는 상황보다 현대를 더 조심스러워한다. 실러(Schiller)의 <엘레우시스 제전>(Eleusinian Mysteries)라는 시는 독일 문학계의 "현대"에 대한 우려를 잘 반영한다:

야수가 황야에서 자유롭게 왕래한다/ 신은 우주에서 자유롭게 통치한다/ 그들 마음속의 강렬한 욕망/ 모두 자연 법칙의 통제를 받다/ 사람은 그들 둘 사이에 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직 도덕의 공로를 통해서만/ 그들을 자유롭게 강대하게 한다. 18)

프랑스에서 시작된 계몽운동(The Enlightenment)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 사상 운동은 '이성'의 지위를 최고 높이까지 끌어올렸고, 점점 현대인들은 고대와 관계를 끊어버렸다. 실러의 시구는 고대인들이 자연계와 신에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대의 찬란한 문명이 만들어졌음을 현대인들에게 상기시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성'이 범람하고, 대대로 축적된 도덕규범을 잊어버리고, 도덕적 구속을 받지 않고, 자연의 섭리와 먼 옛날의 신들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현대 기술이 진보해도 현대인이 진정한 자유와 강함을 얻을 수 없다. 독일은 현대사회 전환의 홍수 속에서 선형적 역사관에 사로잡혀 현대에 고대문화가 존재할 가능성을 죽이는 대신 공시성(共時性)으로 고대와 현대를 연결시켜 전통문화를 현대문화의 근간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프랑스 현대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은 독일 사상가들로 하여금 프랑스 계몽주의의 장점을 계승하는 바탕 위에서 나름의 철학 체계를 갖추게 했다. 이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정신(종교와 도덕)적 요소를 덧입혀 계몽주의가 현대인 정신에 끼친 허점을 보완하려 했다. 헤겔(Hegel), 쇼펜하우어(Schopenhauer), 니체(Nietzsche) 등이 이 길을 따라 나름의 철학체계를 만들었다. 헤겔의 절대이념(absolute idea) 학설과 니체의 디오니시안(The dionysian)이 대표적이다. 이런 학설들은 모두 종교와 자연과 관계가 있다.

전문에서 언급한 루쉰의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사람' 육성의 이상도 사실은 근대 독일 철학에서 탈바꿈한 것이다. 이 점은 <문화평향론>이라는 문장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루쉰은 당시 어떤 부분에서 신학을 제창했던 사람을 비평하였다. 루쉰은 이 사람들이 서양의 '물질'과 같은 관념을 지나치게 숭배하여 '문화 편향'을 조성하고 중국 고대 문화를 반대하는 것에 관한 현상을 분별 없이 비판하였다. 루쉰은 이런 풍조가 기승을 부리면 중국인의 정신이 위선적이고 유약해져 중화민족이 또 다른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루쉰은 '입인(立人)'을 주장했고, '취금복고(取今復古)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세계에 뒤지지 않는 사상의 흐름, 대내적으로는 고유의 중화(中華)의 핏줄을 잃지 않는, 정신이 깊고 역동적인 사람을 길러내고 싶다. 독일 '신구논쟁'에서 현대를 바라보는 태도와 얼마나 흡사한다. 루쉰은 이 글에서 니체, 쇼펜하우어, 슈미트(Schmidt) 등으로 대표되는 서양 19세기 말 독일의 '개인주의' 사조를 비교적 큰 편폭으로 소개했다. 중국의 '현대화' 전환 방향 선택에서 중국판 '신구논쟁'을 앞에 루쉰이 독

18)席勒(2005),『厄琉西斯的祭奠』,『席勒文集』,第1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pp.239-240.

일의 길을 본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루쉰이 '귀신'의 소재를 선택한 이유

루쉰이 능숙한 두 가지 언어, 하나는 일본어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어이다. 저작인(周作人)의 회고에 따라 루쉰은 독일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었고, 읽은 유럽 문학과 독일 철학은 대부분 독일어로 작성됐다. 루쉰도 실레, 니체 등 독일 철학자나 작가의 작품을 다수 번역해 중국 독자에게 소개한 바 있다. 그래서 유럽이 몰고 온 현대화 충격에 대한 선례를 참고하려고 하면 루쉰은 자연스럽게 독일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인가의 역사>, <마라시력설(摩羅詩力說)>, <과학사교편>, <문화편향론>, <파악성론> 이 다섯 편의 루쉰이 일찍이 발표한 현대화 문제를 토론한 논문을 보면, 당시 중국 사회의 현대화 전환에서 생긴 문제에 직면하여, 루쉰이 동의하는 관점과 독일 사상가는 일치한다. 즉, 고금을 연결함으로써 "이성"과 "과학" 등 개념이 유행하고 있는 현대 문명과 고대의 우수한 정신 문명을 결합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고대의 어떤 정신문명에 기댈 것인지에 대해서도 루쉰은 독일 사상가의 선택을 모방해 먼 옛날 자연에서 태어난 종교 미신에 주목했다. <파악성론>에서, 루쉰은 "위선자는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미신은 보존할 수 있다"(僞士當去, 迷信可存)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신앙이 없는 사람'의 관점들을 반박하고, 미신 풍속이 있는 시골 사람을 위해 변명했다. 루쉰은 이른바 '미신'이 사람의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망치는 것은 '미신'을 믿는 향민이 아니라 천박한 공리 사상만 숭배하고, 삶의 재미와 종교의 신비로움의 재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위선자'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루쉰은 '미신'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천지만물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루쉰이 보기에, 지각력과 생명력이 강한 '활력이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도에서는 '미신'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입인'(立人)이라는 현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신'의 매개체 중 하나인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소재로 한 창작이 제격이다. 루쉰이 '귀신'을 선택한 것도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丸尾常喜는 《사람과 귀신의 갈등》(魯迅—「人」「鬼」の葛藤)이라는 책에서 루쉰의 고향 소흥(紹興)의 <목련극>(目連劇)와 루쉰의 사상과의 관계를 논한 적이 있다. 丸尾常喜는 역사가 유구하다고 지적한 <목련극>은 노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유령초도극>의 원형을 보유했다. 이런 특별한 의의들은 노신의 초기 '백심(白心)' '僞士當去, 迷信可存'는 관점의 전제가 되다 시피 했다.¹⁹⁾

또한 '귀신'은 중국 문학사에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이다. 루쉰은 《중국소설사략》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중국에서는 본래부터 무속을 믿었는데, 진한 이래로 신선류의 이야기가 성행했고, 한 말에는 또 무풍이 크게 일어, 귀신에 대한 신앙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때 마침) 소승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점차 유행하고 전파되었다. 무릇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떠벌여지고, 신령스럽고 괴이한 것들이 말하여졌기에, 진에서 수에 이르기까지 귀신지괴의 책이 특히 많았다. 그 책들은 문인에게서 나온것도 있고, 불교나 도교의 신도에 의해 지어진 것도 있다. 문인의 작품은 비록 불교나 도교의 신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종교를 신비화하려 한 것은 아니었으나 의도적으로 소설을 창작하

19) 丸尾常喜, 秦弓譯(2010), 『“人”與“鬼”的糾葛·魯迅小說論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p.21-35.

려 한 것도 아니었다. 당시에는 대체로 명계와 인간세계가 비록 그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이나 귀신이 모두 실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서술하는 것과 인간세계의 일상사와 과 허망함의 구별이 그래서 민속적으로나 역미지는 잘 알려져 있다. 그 개조하는 데 적합한 이유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뭉뚱며 떠나지 못서 프랑스 G.Le Bon 저서 리》에서 귀신을 언급한 성 개조의 어려움을 표현 죽은 주체적으로 행하는 의 견제를 받는다. 우리 세 대 이전의 귀신에 비교하 수 없다.”²¹⁾ 또한 중국 고통 의 기만에도 자주 속아 공 즐 알고 “저승에 대한 동경



圖1:魯迅于1927年畫的“活無常 圖”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⁰⁾ 사적으로나 ‘귀신’이라는 이 리고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는 중국인들이 그를 잘못된 ‘오래된 망령’은 줄곧 국민의 했다. 루쉰은 <수감록 38>에 의 《민족이 진화하는 심 부분을 인용하며 국민 열근 하였다: “우리의 일거수일투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귀신 대의 사람들을 과거 수백 세 면 수적으로 절대로 대항할 받는 하층민들은 성인군자들 정한 재판이 저승에서 생김 을 불러일으킨다.”²²⁾ 상층민이

나 선비들이 또 유교의 “思無邪”라는 말에 의해 인간성이 왜곡된다. 루쉰은 일찍이 이렇게 ‘思無邪’의 설을 반박했다: “억지로 사악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強以無邪, 非以人志)”.²³⁾ 중국 역사에서 축적된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루쉰에게 바로 잡아주고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귀신의 이미지는 중국 미술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루쉰은 화상이 있는 책을 즐겨 수집하는데, 단지 《玉曆鈔傳》에 불과하며, 그의 소장품도 8가지 판본이 있다고 전해진다. 1927년 6월 25일, 루쉰은 <활무상도>를 그렸다.²⁴⁾ 이것은 루쉰이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각 버전의 《玉曆鈔傳》에서 있는 <무상도>에 따라 그린 것이다. 이 <활무상도>는 <무상>의 삼화로, 반월간지 《망원》(莽原) 제1권 제13호에 실렸다. ‘무상’의 이미지는 <목련곡>과 선인들이 그린 삽도 때문에 고정되어 귀신은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문학 창작의 ‘귀신’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루쉰은 오히려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신이나 귀신을 그릴 경우 확인해 볼 방법이 없으니 전적으로 상상력에 의지해서 소위 ‘천마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그려 낸다. 그러나 그들이 그려 낸 것은 단지 눈 3개와 긴 목일 뿐이니, 즉 일상 보는 인간의 몸에 눈 하나를 더 붙이고, 목을 두세 자로 늘인 것일 따름이

20) 魯迅(2005),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 第9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45.

원문: 中國本信巫, 秦漢以來, 神仙之說盛行, 漢末又大暢巫風, 而鬼道愈熾; 會小乘佛教亦入中土, 漸見流傳. 凡此, 皆張惶鬼神, 稱道靈異, 故自晉訖隋, 特多鬼神志怪之書. 其書有出於文人者, 有出於教徒者. 文人之作, 雖非如釋道二家, 意在自神其教, 然亦非有意為小說, 蓋當時以為幽明雖殊途, 而人鬼乃皆實有, 故其敘述異事, 與記載人間常事, 自視固無誠妄之別矣.

21) 魯迅(2005), 『隨感錄三十八』, 『熱風』, 『魯迅全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329.

원문: 我們一舉一動, 雖似自主, 其實多受死鬼的牽制. 將我們一代的人, 和先前幾百代的鬼比較起來, 數目上就萬不能敵了.

22) 魯迅(2005), 『無常』, 『朝花夕拾』, 『魯迅全集』, 第2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279.

23) 魯迅(2005), 『摩羅詩力說』, 『墳』, 『魯迅全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70.

24) 魯迅(2005), <活無常圖>, 『無常』, 『朝花夕拾』, 『魯迅全集』, 第2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343.

다. 이것이 무슨 능력이며, 무슨 창조인가?”²⁵⁾

분명 루쉰은 사람의 모습에 따라 만든 귀신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神思에 의지하여 '귀신'이라는 오래된 형상을 다시 창작할 수 있었는지, 루쉰은 <문화편향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밖으로는 세계사조에 처지지 않고, 안으로는 고유한 전통을 잃지 않고, 올날 것을 취해 옛것을 부활시키고, 달리 새로운 유파를 확립하여 인생의 의미를 심원하게 한다면, 나라 사람들은 자각하게 되고 갯성이 확장되어 미래로 이루어진 나라가 그로 인해 인간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²⁶⁾ 감지력 있고 개성 있는 진정한 인간을 키우기 위해 활용해야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고금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루쉰은 낭만주의 시인(摩羅詩人)에게서 힌트를 얻었다. 루쉰은 摩羅詩派는 “충분히 사람들을 진작시킬 만한 힘이 있고 또한 말이 비교적 깊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²⁷⁾ 루쉰이 摩羅 시인을 높이 평가를 준 이유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摩羅 시파의 시가 사람의 마음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시의 표현법이 재미있고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루쉰은 “다른 나라의 새로운 소리를 탐구해 보자. (求新聲於異邦)”²⁸⁾, 생각하면서도, 민족 문화 중의 정수를 버릴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둘을 결합하여 새로운 유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神思宗之至新者”²⁹⁾의 방법은 “19세기 초엽의 神思 일파”³⁰⁾의 사상을 계승하며,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항하다. 루쉰은 이를 본떠 문학에 있어서 ‘摩羅 시인’의 정신을 도입하여, 중국 전통에 접목하여, 이것을 ‘神思新宗’이라 명명했다.³¹⁾

“神思”라는 단어는 《摩羅詩力說》에 11번 등장하였는데, 루쉰의 다른 문장들에서도 많이 나왔다. 이것은 루쉰의 초기 문학관념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神思’ 역시 중국 고대문학 이론에서 유구한 개념이다. 유헌(劉勰)은 《文心雕龍》<神思>편에서 이 개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해석을 하였다. 쉽게 말해 ‘神思’는 “문장의 구성에 골몰해 있는 사람은 가기의 정신 속에서 멀리멀리 여행을 하게 된다. (文之思也, 其神遠矣)”, “상상력의 미묘함을 통하여 정신은 외부의 사물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思理爲妙, 神與物遊)”라고 말한다.³²⁾ 어떤 학자들은 ‘神思’를 영어의 ‘imagine’으로 간단하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런 해석은 단편적이다. ‘神思’의 개념의 중심은 ‘思’에 있을뿐더러 ‘神’에 있다. ‘神’의 뜻은 先秦시대 《易》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易》<系辭上>은 ‘神’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음인지 양인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陰陽不測之謂神.)”³³⁾ ‘神’이라

25) 魯迅(2005), 『葉紫作『豐收』序』, 『且介亭雜文二集』, 『魯迅全集』, 第6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227.

원문: 描神畫鬼, 毫無對證, 本可以專靠了神思, 所謂‘天馬行空’似的揮寫了, 然而他們寫出來的, 也不過是三隻眼, 長頸子, 就是在常見的人體上, 增加了眼睛一隻, 增長了頸子二三尺而已。這算什麼本領, 這算什麼創造?

26) 魯迅(2005), 『文化偏至論』, 『墳』, 『魯迅全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57.

원문: 外之既不後於世界之思潮, 內之仍弗失固有之血脈, 取今復古, 別立新宗, 人生意義, 致之深邃, 則國人之自覺至, 個性張, 沙聚之邦, 由是轉爲人國。

27) 魯迅(2005), 『摩羅詩力說』, 『墳』, 『魯迅全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68.

원문: 至力足以振人, 且語之較有深趣

28) 同上, p.68

29) 魯迅(2005), 『文化偏至論』, 『墳』, 『魯迅全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61. 神思宗之至新者: 19세기 말엽의 극단적 주관적 유심주의 파벌을 가리킨다.

30) 同上, p.61. 神思一派: 19세기 초엽 해겔로 대표되는 유심주의 학파를 가리킨다.

31) 同上, p.51.

32) 〔南朝梁〕劉勰著, 黃叔琳註, 李詳補註, 楊明照校註拾遺(2012), 『增訂文心雕龍校註』, 北京: 中華書局, p.372.

는 개념이 처음에는 신비한 색깔이 가지고 있다. 중국 고대문학 이론 중 '神'의 개념은 반드시 《文心雕龍》의 <原道>와 결합하여 이해해야 한다. 劉勰에게 있어 독립된 '文'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文'은 '道'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같은 이치로 사람은 '神'을 감지하기 위해 사유활동을 한다. 어떻게 보면 '神'과 '道'는 비슷하다.

그러나 《文心雕龍》에 나오는 '神'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 紀昀은 '神'을 "자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標自然以爲宗)"이라고 생각한다.³⁴⁾ 牟世金·陸侃如³⁵⁾王運熙³⁶⁾、羅宗強³⁷⁾등 중국 고대 문론연구자들 역시 이를 따르며 '神'을 '자연의 道'로 여겼다. 詹鍔는 《文心雕龍義證》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神理'의 의미는 '周易'에서 나왔다."³⁸⁾ 張少康은 《文心雕龍新探》에서 '神'을 '신비 주의와 유심 주의의 색채를 있다'라고 생각한다.³⁹⁾ 비록 각각의 의견이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말하면 '神'은 자연과 신비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인간은 아직 알 수 없는 세계의 정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神思'는 단순히 글쓰기 사유 자체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세계의 정체에 통달하는 수단이다.

루쉰이 언급한 '神思'가 《文心雕龍》에서 언급한 '神思'와 명확한 계승 관계가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러나 루쉰은 《摩羅詩力說》에서 유사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옛 사람의 상상력은 자연의 오묘함에 닿아 있고 삼라만상과 연결되어 있어,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말할 수 있는 바를 말하게 되면 시가가 된다."⁴⁰⁾ 루쉰은 시가 생성된 것은 고대인들이 '神思'를 통해 천연을 감지하여 얻은 것으로, 어느 정도 신비한 색채를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神'의 해석과 유사성이 있다. 게다가 루쉰은 <評心雕龍>이라는 제목의 잡문을 썼는데, 제목은 바로 劉勰의 <文心雕龍>을 본뜨기 때문에, 루쉰이 <文心雕龍>을 읽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상술한 추론이 성립한다면, 루쉰은 '복고(復古)'를 추구하기 위해서, '神思'를 통해 세상의 정체와 진실한 인간성을 느끼는 가장 좋은 매개체는 바로 똑같이 오래되고 신비로운 '귀신'의 이미지가 될 것이다.

4. 루쉰의 문학 현대화에 대한 책략

그러나 전통에 따라 '神思'를 해석하는 것은 루쉰의 본의가 아니라 그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神思新宗'을 개설하려는 것이었다. 루쉰은 중국 전통 문론 개념인 '神思'를 유럽 낭만주의와 연결시켜 '神思'로 하여금 중국 고대 시학에서 부드럽고 완곡한 '情'과 '志'의 전통을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神思'에게 울분하는 감정과 반항의 뜻을 부여하였다.

루쉰은 중국인의 문제는 정신의 경직성에 있으며, 선인의 본성은 자유롭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반항할 줄 알고 천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루쉰의 필치 아래 적지 않은 '귀신'의 이미지가 반항정신을 부여받았다. 그중에서 루쉰의 이러한 새로

33) 李申主撰(2018), 『周易經傳譯註』, 北京: 中華書局, pp.249.

34) [梁] 劉勰撰, [清] 黃叔琳註, [清] 紀昀評(1957), 『文心雕龍輯註』, 北京: 中華書局, p.24.

35) [梁] 劉勰著, 牟世金、陸侃如譯註(1996), 「原道」, 『文心雕龍譯註』, 濟南: 齊魯書社, p.98. 牟世金、陸侃如把'神理'註解為'自然之理'.

36) 王運熙(2014), 『文心雕龍探索』, 『王運熙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53. 王運熙認為'神理之數'、'道心'、'神理'都是指自然之道.

37) 羅宗強(1999), 『羅宗強古代文學思想論集』, 汕頭: 汕頭大學出版社, p.28. 羅宗強認為'神理'與'自然之道'義同.

38) 詹鍔(1989), 『文心雕龍義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17.

39) 張少康(1987), 『文心雕龍新探』, 濟南: 齊魯書社, p.37.

40) 魯迅(2005), 「摩羅詩力說」, 『墳』, 『魯迅全集』, 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65.

원문: 古民神思, 接天然之宮, 冥契萬有, 與之靈會, 道其能道, 爰爲詩歌.

운 '神思' 정신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은 바로 <여조>와 <검을 버린 이야기> 중의 '眉間尺'과 '검은 사람(黑色人、宴之敖)'이다. <여조>는 원래 紹興 지방극이다. 이 희극은 여자 목매 죽은 귀신이 대역 하나를 얻으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의 몸을 빼앗기 위해 男吊와 몸싸움을 벌이는 내용이다.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루쉰은 오히려 女吊에게서 다른 반항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女吊를 이렇게 소개하였다: “복수를 하는, 그 어떤 귀신보다 아름답고 굳센 귀신이다.”⁴¹⁾ '美' '強' 등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루쉰은 복수를 감행하는 '女吊'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검을 버린 이야기>은 《새로 쓴 옛날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다. 루쉰이 편집한 《古小說沉鈎》에서 眉間尺의 복수 설화가 曹丕가 지은 《列異傳》에서 나왔다고 언급하였다.⁴²⁾ 원작의 서사는 단순하지만 루쉰은 그의 새로운 '神思'를 응용해 이야기에 많은 디테일을 가미했다. 서사에 그런 기괴한 가사를 삽입하는 것 외에도, 루쉰은 이야기 주인공 '眉間尺'을 쥐가 죽은 것도 불쌍하게 여기는 나약한 아이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眉間尺은 용감하게 저항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수를 위해 자기의 머리를 베어 '검은 사람(宴之敖)'에게 주었다. 결국 '眉間尺'은 려귀의 머리가 되어 용감하게 왕을 물었고, 왕을 뜨거운 물 속으로 끌어들여 죽인다. '宴之敖'라는 이름도 루쉰이 지었고 원작에서는 그가 협객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眉間尺의 복수를 돕기 위해 등장하였지만 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루쉰은 이 글에서 '宴之敖'는 '검은 사람'이며, 또 그가 '인화(磷火)와 같은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일 수도 있다.⁴³⁾ 인화, 동아시아 민간에서는 속칭 '도깨비불'이라 부른다. 인골에는 磷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화수소(磷化水素)가 생성된다. 인화수소는 자연발화돼 불빛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름철 무덤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어 '귀신'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검은 사람'도 반항자이다. 그는 眉間尺의 복수는 물론 眉間尺의 복수를 돕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루쉰은 귀신에게 서구 낭만주의가 제창한 반항이라는 현대정신을 부여한 것 외에도 그가 사람이 “세상에 그래도 진정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용감하게 말하고, 웃고, 울고, 화내고, 욕하고, 때리면서, 이 저주스러운 곳에서 저주스러운 시대를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라고 생각한다.⁴⁴⁾ 그래서 그는 '귀신'을 인간의 천성을 되살렸다. 예를 들어, 루쉰이 쓴 '無常'에 대해, 루쉰은 그에 대해 “시원하고 의론이 많이 했으며 인정도 많다”고 평했다.⁴⁵⁾ 루쉰이 보기에 '無常'은 귀신이지만 어떤 사람보다 단순한 인간성을 지녀 더 사랑스럽다. 또한 루쉰이 쓴 '女吊'처럼, 귀신은 죽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왕성한 복수심이 남아 있었고, 입고 있는 옷 색깔조차 모두 불그스름한 색이었고, 그의 이미지는 매우 생동적이다. 흰옷을 입고 있고, 의기소침한 '귀신'의 고유한 인상과는 전혀 달랐다. 루쉰은 '女吊'처럼 애증이 분명하고 대담하게 반항하는 '귀신'이야말로 오히려 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귀신'는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루쉰은 그의 생각(思)을 이용하여

41) 魯迅(2005), 「女吊」, 『且介亭雜文未編』, 『魯迅全集』, 第6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637.

원문: 一個帶復仇性的, 比別的一切鬼魂更美, 更强的鬼魂

42) 魯迅(2005), 「鑄劍」, 『故事新編』, 『魯迅全集』, 第2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451.

43) 同上, p.440.

44) 魯迅(2005), 「忽然想到(五)」, 『華蓋集』, 『魯迅全集』, 第3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45.

원문: 世上如果還有真要活下去的人們, 就先該敢說, 敢笑, 敢哭, 敢怒, 敢罵, 敢打, 在這可詛咒的地方擊退了可詛咒的時代!

45) 魯迅(2005), 「無常」, 『朝花夕拾』, 『魯迅全集』, 第2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282.

선인의 '神'과 연결시키고, '귀신'에게 적극적인 항쟁 정신을 부여하였다. 또 '귀신'의 차가운 이미지를 벗고, 그들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앞의 글에서 보듯 루쉰은 인간이 자유를 얻으려면 생각이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귀신'의 이미지는 중국 문화에서 이미 몇 천 년 동안 침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귀신'에 대한 상상도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귀신'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전통적인 귀신 이미지를 계속 묘사하다 보면 새로운 사상을 부여한 귀신에 대한 궁금증과 상념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루쉰이 또 다른 현대화 책략 '낯설게 하기'를 쓴 것이다.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은 러시아의 형식주의 비평가 슈클로프스키(Shklovsky)가 제시한 서양문학 이론 개념이다. 그는 "예술의 존재는 사람이 삶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돌을 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술은 알려진 사물이 아니라 감지된 사물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46)한마디로 예술은 묘사의 대상을 낯설게 만들고, 독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독자들이 느끼는 물건의 난이도와 길이를 증가시켜 심미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지력을 회복한다. <기법으로서의 예술>(Art as Technique)이란 글에서 슈클로프스키는 일반적으로 글쓰기에 사용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은 세 가지라고 언급한다: 첫째는 불규칙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수사법을 구사하는 것, 둘째는 글쓰기 시각을 바꾸는 것, 셋째는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별하는 것이다.47)루쉰과 슈클로프스키는 동시대의 문학비평가였고, 루쉰이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많지만 슈클로프스키의 저서를 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쉰의 작품은 '낯설게 하기' 기법을 운용하는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아래는 루쉰의 작품 중 가장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산문시집 《야초》을 예로 들며, 루쉰이 어떻게 민중에게 친숙한 '귀신'을 낯설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루쉰이 전과하려는 '사람을 양성하다(立人)'의 목적을 달성한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야초》에서 '귀신' 이미지에 관한 편목은 주로 <죽은 불>, <잃어버린 좋은 지옥>, <빛돌 글>, <죽은 뒤>가 있다. 그중에서도 <죽은 불>는 가장 큰 쟁점을 생겼다. 어떤 이는 <죽은 불>의 주제가 '귀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루쉰이 일찍이 창작한 <불의 얼음>과 결합한 것으로 볼 때 '죽은 불'은 불을 동결한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바로 루쉰의 '낯설게 하기'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범상치 않은 수사를 쓰다. 불은 뜨거웠고, 얼어붙은 불은 따뜻한 사람이 죽으면 차가운 시체로 변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죽은 불'이라고 불렀다. '죽은 불'은 '불'의 '귀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논거는 '나'는 그가 '火宅에서 나왔'다고 의심되었다.48) '火宅'은 불경의 단어에서 유래했다. 불경은 '火宅' 안에 고통의 불이 가득 차서 타오르는 것을 형용한다. 그래서 이를 인간 고뇌의 세계를 비유한다.49) 그래서 '죽은 불'이 火宅에서 벗어난 것은 '죽은 불'이 '귀신'을 됐음을 암시한다. 루쉰은 한동안 불경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기 때문에 불경의 고유명사로 세상을 비유하였다. 이렇게 쓰면 일반 독자들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느낄 수 있다. 산문시의 마지막, '죽은 불'은 자신을 불태우고 '나'를 얼음골에서 가져간다. 이 인격화 기법은 의미심장하다. 루쉰은 '죽은 불'에 인격을 부여하고, '나'가 차가운 얼음골에서 탈

46)Victor Shklovsky(1965), *Art as technique, Russian formalist criticism : four essays*, Nebraska: th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12.

47)同上, pp.21-24.

48)魯迅(2005), 「死火」, 『野草』, 『魯迅全集』, 第2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200.

49)同上, p.202. 該文注釋中對'火宅'一詞如此解釋: 『法華經』「譬喻品」中說: "三界(按這裡指慾界、色界、無色界, 泛指世界)無安, 猶如火宅, 眾苦充滿, 深可怖畏, 常有生老病死憂患, 如是等火, 熾然不息。"

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불태워 '나'가 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낯설게 하기' 기법의 이면에는 루쉰이 일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입인(立人)'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잃어버린 좋은 지옥>에서 루쉰이 구사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은 글쓰기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좋은 지옥>에서는 제일인칭 '나'로 서술한다. '나'는 지옥 옆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내 앞에 서 있는 꿈을 꿔다. 전통적으로 추하고 흉악한 '마귀'와 달리, 이 '마귀'는 "위대하다" "아름답고 자비롭고 온몸에 환한 빛이 서렸다."는 것이다.⁵⁰⁾ 이 반전통적 묘사는 독자들에게 '귀신'인지 '불조님'인지 헷갈리게 한다. 하지만 다음에 바로 '마귀'의 시각 위주로 서술한다. '마귀'는 '나'에게 신, 마귀, 사람이 몇 번이나 번갈아 가며 지옥을 통치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원래 지옥은 귀신의 영지이지만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귀신의 땅은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루쉰이 일반적인 인식을 뒤엎고 백성을 '귀신'에 비유하고 오히려 악당을 인간에 비유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문시의 결말, '마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무,그대는 내 말을 의심하고 있군. 그래, 그대는 사람이니까! 나는 잠시 들짐승과 악귀들을 보러 가려네……"⁵¹⁾여기서 '나'는 '마귀'에 의해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마귀'는 '사람'과 '짐승' '악귀'와 같은 나쁜 것은 동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원래 텍스트에서 '사람'은 부정적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결말 때문에 '사람'의 의미가 흐릿해진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루쉰이 표현하려는 사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귀신'(백성)은 더 이상 각양각색의 '지옥'의 주재자에게 희망을 걸면 안 된다. '귀신'이 '지옥'을 탈환하려면 반항해야 한다. 이러한 작문 시각과 감정적 색채가 끊임없이 바뀌는 '낯설게 하기' 기법은 루쉰이 '귀신'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새로운 '神思'를 구사하여 독자들이 '立人'의 사상을 깨닫도록 유도한 현대화 책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위 같은 '귀신' 이미지와 대중적 인식과는 다른 '지옥'은 독자들에게 낯설다. 인물과 공간을 낯설게 만드는 것 외에 루쉰도 서사 시간을 개조했다. 한국의 학자 박자영은 <루쉰의 귀신, 벤야민의 천사>에서 루쉰이 <女吊>라는 글에서 묘사한 '女吊'의 비참한 일생과 그 사후 복귀, 그리고 '하층민'과 '귀신'이 함께 '女吊'의 복수 장면을 보며 '선형 역사의 시간'을 타파하고 독자로 하여금 '현실'과 '역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女吊'의 존재와 시각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주체와 역사가 시간을 초월해 현대무대에 재등장할 가능성을 묘사한다.⁵²⁾필자가 서구 현대문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선형 서사를 혼란시키고 서사의 시간을 끼워넣고 재구성하는 것도 낯설게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女吊>의 시간관의 의미에 관해서는 본 글은 '새로운 주체를 서술했다'는 점에 더해 별도로 보충하려고 한다.

시간관념에 대한 인류의 인식사를 돌이켜보면 현대에는 선형적 시간관이 자리 잡았지만, 사실 고대 상당 기간 서양인들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모호하고 연대에 대한 감지력이 부족했다. 웰렉(Wellek)은 이렇게 말했다: "17세기 이전 대중들이 그리스와 고대 로마는 대체로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했다. 논자들은 버질(Virgil)과 오비디우스(Ovidius), 호라티우스(Horatius), 심지어 호메로스(Homeros)에 대해 논의할 때 그들이 동배로 생각했

50) 魯迅(2005), 「死火」, 『野草』, 『魯迅全集』, 第2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204.

원문: 美麗, 慈悲, 遍身有大光輝

51) 同上, p.205.

원문: 朋友, 你在猜疑我了。是的, 你是人! 我且去尋野獸和惡鬼……

52) 박자영(2015), 「루쉰의 귀신, 벤야민의 천사」, 『중국현대문학』, 74호, pp.65-90.

다. 비록 연감의 객관 역사가 다 알려져 있더라도 사람들은 시대 간의 간극을 의식하기 어렵다. 역사 발전이라는 이념은 진보의 이념에서 탄생했고, 이라는 이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⁵³⁾고대 그리스 신화와 성경을 보면 고대인의 시간관은 윤형(輪型) 시간관이 더 많다. 이런 것은 고대인들이 자연을 관찰해 얻은 인식이다. 사계가 끝없이 순환한다. 중국에서는 《易經》<復>에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다: “그 순환의 길이 반복되어 일곱 번 만에 다시 (양효가) 온다……복괘에서 아마도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反復其道，七日來復’……復，其見天地之心乎!”⁵⁴⁾중국 고대 사회에서도 윤형 시간관이 오랫동안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는 선형적 시간관이 근대적 물질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흥의 시간관념 중 하나일 뿐,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은 루쉰에게 '낮설게 하기' 창작의 공간을 주었다. 비록 루쉰의 어린 시절 추억에 따라 묘사한 <女吊>는 허구적인 것이 아니지만, 서술 상 루쉰은 '현실'과 '과거'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다. 루쉰은 서술에서 두 가지 시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는 무대 위의 허구적인 역사적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무대 아래의 사실적인 현재 시간이다. 무대에서 '男吊'가 춤을 춘 것과 '女吊'가 귀신이 되기 전의 조우와 자살한 것은 이제 옛 일이 됐다. '男吊'와 '女吊'는 이미 죽은 귀신이 되었으니 당연히 과거의 사람이다. 그러나 귀신들은 현시의 무대에서 그들의 과거의 사망 양상을 재현한다. '男吊'를 연기하는 '귀신'은 '王靈官'에게 매를 맞은 뒤 무대에서 뛰어내려 강변으로 달려가 화장을 지운 뒤 관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연극을 볼 수 있다. 이 동작은 '男吊'라는 귀신이 '과거'에서 '현재'로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대 아래 '현재'의 시간을 보내는 관객들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형'이 돼야 할 귀신들도 있다. 죽은 '귀신'들은 지금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자기가 과거에 따라 쓴 연극을 연기하는 것을 보고 있다. 루쉰의 서사에는 시간이 단순히 앞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짜여져 있고, 순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즉 왕령관에게 맞아 남조가 어찌하여 지금 '목매어 죽은 역할을 놀면' 살아나서 나타나는가?”⁵⁵⁾

루쉰은 '나'의 질문을 빌려 독자들이 이 혼란스럽고 당시의 상식에 어긋나는 시간 순서를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시키다. 루쉰이 이처럼 낯선 서사 방식을 쓴 것도 당시 한창이던 선형 진보의 시간관에 대한 반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럽이나 당시의 중국이나 현대화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 통념은 급진적인 역사 진보주의만을 인정하고, 현대의 모든 것이 과거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이성'과 '물질'과 '과학'을 숭배하면 사회는 계속 진보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반드시 진보적일까? '이성'과 '물질'과 '과학'은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것일까? 루쉰은 이 '현대'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女吊>의 말미에, 루쉰은 소흥 시골의 고인 부인들이 솔 밑의 석탄재를 굽을 때 반드시 석탄재를 훑날려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의 완전한 모양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석탄재는 '女吊'이 사람을 꼬여 귀신으로 되고 대역을 구할 때 만들어 놓은 계략이라고 여겼다. 이런 방법에 대한 루쉰의 평론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잡으려' 드는 데에 반대하는 것이지, 복수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다. 압박받는 사람들은 설령 보복하려는 독한 마음은 없을지라도 남의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오직 음으로 양으로 남의 피를 빨고 살을 먹는 악인

53) [美] 雷纳·韦勒克 著, 杨自伍译(2009), 『近代文学批评史』, 第1卷, 上海: 上海译文出版社, p.25

54) 李申主撰(2018), 『周易經傳譯註』, 北京: 中華書局, p.92.

55) 魯迅(2005), 「女吊」, 『且介亭雜文末編』, 『魯迅全集』, 第6卷,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p.642.

원문: 男吊既然早被王灵官打死, 为什么现在‘跳吊’, 还会引出真的来呢?

과 그 조력자들만이 '남에게 당하여도 따지지 말라', '지나간 잘못은 잊자' 따위의 격언을 사람들에게 선물한다.- 나는 올해 들어, 사람 낫잡을 한 이런 자들의 속셈을 더욱 잘 꿰뚫어 보게 되었다." 56) 「<여조>는 루쉰의 만년에 쓰여졌는데, 당시 중국 사회는 여전히 현대화의 초기 단계에 있었고,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루쉰은 '이성'이라는 간판을 내건 하수인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다. 그들은 가해자가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과거에 한 악행을 따지지 말도록 권유할 것이다. 불과 수십 년 후 1977년 첫 출간된 프랑스 학자 푸코(Foucault)의 《감시과 처벌: 감옥의 탄생》에서 루쉰의 우려가 입증됐다. '이성 지상주의'가 탄생한 감옥과 감옥을 중심으로 설계된 체제가 수감자에게 준 육체적 괴롭힘 대신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정치·권력·관념·과학기술 문제는 더욱 들리기 어려운 '부드러운' 폭력으로 죄인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피하기 쉽다. 푸코는 이 책에서 결국 이렇게 결론지었다: 혹형에서 감옥으로 전환한 방법은 야만함을 이성으로 대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는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의 타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57) 다시 말해 진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반드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진보'라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루쉰의 우려를 호응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선형 진보적 시간관을 견지하고, '물질'과 '이성'과 '과학'을 지나치게 숭배하며, 오직 현재에만 눈을 뜨고, 사람의 정신 양성을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력을 잃게 한다. 따라서, 루쉰은 <여조>에서 "전진적 문학과 '전투'적 용사들께서 엄청 성내지 말 것을 감히 청하는 바이다", 58) 그는 '전진'에만 골몰하는 현대적 관념을 비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 사상가들이 서유럽 주류의 급진적인 '현대화' 관념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신중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계승하였고,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다. 그는 현대인에게 과거를 잊지 말고 고대의 우수한 정신문화에서 자양분을 흡수해 강한 정신의 활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루쉰의 '立人' 사상을 홍보하는 매개체는 바로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으로 개조하였고, 마찬가지로 고대에서 왔고, 정신 신앙을 대표하는 '귀신'이다.

5. 結語

루쉰이 처한 시대는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체가 이제 막 유럽에 의해 강제 근대화 된 시대이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였다. 이 갈림길 앞에서 서로 다른 선택은 각 민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竹内好는 일본의 현대화는 '전향형'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은 서방의 충격에 받을 때 주체적인 저항 없이 그냥 굴종했다. 결국 시기별로 밀려드는 여러 서양사상에 직면했을 때 일본은 끊임없이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아를 잃었다. 그런데 그가 중국의 현대화는 '回心型'이라고 생각했다. '回心'의 특징은 외래문화 충격을 받아들일 때 주체의 저항을 먼저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저항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

56)同上, p.642.

원문: 散掉烟煤, 正是消极的抵制, 不过为的是反对'讨替代', 并非因为怕她去报仇。被压迫者即使没有報復的毒心, 也决无被報復的恐惧, 只有明明暗暗, 吸血吃肉的凶手或其幫閑们, 这才贈人以'犯而勿校'或'勿念旧恶'的格言——我到今年, 也愈加看透了这些人面东西的秘密。

57)[法]米歇爾·福柯著, 劉北城、楊遠嬰譯(2003), 『規訓與懲罰: 監獄的誕生』,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pp.353-354

58)魯迅(2005), 「女吊」, 『且介亭雜文末編』, 『魯迅全集』, 第6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640.

원문: 敢請'前進'的文學家和'戰鬥'的勇士們不要十分生氣

후의 조정과 변화는 무턱대고 다른 문화로 이동이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한 변화이기 때문이다.⁵⁹⁾ 이런 선택은 루쉰이 유럽 현대화의 진행 과정과 당시 중국 현대화의 현상을 살펴본 후 얻은 결과였다. 독일 사상가의 의지를 본떠 루쉰은 '立人'의 목표를 세우고, 동시에 고금을 결합해 정신적 요소를 가미한 것을 본받았다. 다음 부분은 본 연구의 중점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후대 작가와 비평가들이 깊이 연구하고 모방할 만한 작문 사례이다. 우리는 위대한 작가가 어떻게 현대인에게 버림받은 오래된 이미지를 현대에 새롭게 빛나게 했는지 배울 수 있다. 독일 사상가들이 내국인의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오래된 종교적 요소를 가미한 것을 모방하기 위해 루쉰은 먼 옛날부터 자연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색채를 지닌 귀신이라는 이미지에 눈을 돌렸다. 그는 고금을 연결하며 중국 고대문학 이론 속 '神思'의 '神'이라는 신비로운 자연적인 '道'에 상응하는 문학적 이미지의 '귀신'을 찾아냈다. 루쉰은 '귀신'이 죽은 후에도 힘을 다해 반항하는 점을 포착하고, 이점을 유럽 낭만주의의 반항정신과 연결하여 '神思'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여 '반항'을 특화한 개념인 '神思新宗'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현대문학의 '낯설게 하기' 수법을 통해 귀신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사람의 감정을 그에게 부여해 사람이 귀신에 대해 고유한 진부한 인상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런 방법은 독자가 귀신에게 부여한 새로운 깊은 뜻을 이해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새로운 깊은 뜻은 바로 상고 선인의 원초의 천성에 호응하여 봉건사회에 반항하여 자아를 해방하고 천성을 해방하여 진정으로 활력 있는 '살아남은 사람'이 될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동시에 루쉰은 당시 열광했던 '선형 진보적 시간관' 숭배 현상에 맞서 '이성'이 범람하고 '과학'과 '물질'에 맹종하는 병폐를 지적하였다. 그가 '낯설게 하기' 기법을 이용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난맥상에 대한 경각심을 교묘히 환기시킨다. 이 독창적인 개조 기법은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문학적 아름다움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루쉰이 말한 "선인의 상상력은 풍부해서 스스로 발양할 수 있다"⁶⁰⁾라는 중국 고대 사상의 장점을 느끼게 한다. 외래 유럽 문명의 충격과 '선형적 진보 시간관'이 가져온 물질, 과학, 이성 등 과대 숭배의 현대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루쉰은 광신 뒤에 잠재된 함정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귀신'이라는 전통 이미지를 이용하여 중국인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원시적인 민족적 성격을 일깨웠다. 그가 중국 문화에 입각하여 고대 우수한 문화를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과 민족 정체성을 증진시켰다. 그가 봉건 사상의 인간에 대한 속박을 풀고, 자아를 해방시키고, 인간성으로 회귀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책략은 루쉰이 동아시아 문화 내부의 자생력을 이용하여 문학을 현대화 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루쉰이 창조한 '귀신' 이미지의 현대화 개조 범례는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국가 현대화 과정 중 마주치는 곤경에 대해 문학 및 민족정신 양성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參考文獻】

〔法〕米歇爾·福柯著, 劉北城、楊遠嬰譯(2003), 『規訓與懲罰: 監獄的誕生』,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魯迅(2005), 『魯迅全集』, 第1·2·3·6·8·9·1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59) 竹內好著, 李冬木等譯(2016), 「何謂近代: 以日本與中國為例」, 『近代的超克』,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pp.256-263.

60) 魯迅(2005), 「破惡聲論」, 『魯迅全集拾遺』補編, 『魯迅全集』, 第8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32.

- 李申主撰(2018), 『周易經傳譯註』, 北京:中華書局
- [梁]劉勰撰, [清]黃叔琳註, [清]紀昀評(1957), 『文心雕龍輯註』, 北京:中華書局
- [梁]劉勰著, 牟世金、陸侃如譯註(1996), 『文心雕龍譯註』, 濟南:齊魯書社
- 羅宗強(1999), 『羅宗強古代文學思想論集』, 汕頭:汕頭大學出版社
- [美]雷納·韋勒克 著, 楊自伍譯(2009), 『近代文學批評史』, 第1卷, 上海:上海譯文出版社
- [南朝]梁劉勰著, 黃叔琳註, 李詳補註, 楊明照校註拾遺(2012), 『增訂文心雕龍校註』, 北京:中華書局
- 錢理群(2003), 「魯迅筆下的兩個鬼:讀「無常」、「女吊」及其他」, 『魯迅作品十五講』, 北京:北京大學出版社
- 丸尾常喜, 秦弓譯(2010), 『“人”與“鬼”的糾葛:魯迅小說論析』, 北京:人民文學出版社
- 丸山昇(1965), 『魯迅:その文學と革命』, 『東洋文庫』, 第47卷, 東京:平凡社
- 王運熙(2014), 『文心雕龍探索』, 『王運熙文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席勒(2005), 「厄琉西斯的祭奠」, 『席勒文集』, 第1卷, 北京:人民文學出版社
- 夏濟安, 萬芷均·陳琦·裴凡慧·陶磊·李俐等合譯(2015), 『黑暗的閘門:中國左翼文學運動研究』, 香港:中文大學出版社
- 竹內好著, 李冬木等譯(2016), 「何謂近代:以中國和日本為例」, 『近代的超克』,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詹鏞(1989), 『文心雕龍義證』, 上海:上海古籍出版社
- 張少康(1987), 『文心雕龍新探』, 濟南:齊魯書社
- Victor Shklovsky(1965), *Art as technique, Russian formalist criticism : four essays*, Nebraska: th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박자영(2015), 「루쉰의 귀신, 벤야민의 천사」, 『중국현대문학』, 74호, pp.65-90.
- 朴姿映(2015), 「루쉰이 불러낸 귀신들: 시선과 질문들」, 『중국어문학논집』, 93호, pp.201-227.
- 유세종(2000), 「루쉰의 귀신과 민중: 『태평시대의 귀신노래』를 읽기 위하여」, 『중국현대문학』, 19호, pp.283-300.
- 程凱(2004), 「『招魂』·『鬼氣』與復仇:論魯迅的鬼神世界」, 『魯迅研究月刊』, 第6期, pp.26-34.
- 孫郁(1998), 「鬼氣·血氣·正氣」, 『魯迅研究月刊』, 1998年第3期, pp.3-5.
- 汪暉(2008), 「魯迅與向下超越:《反抗絕望》跋」, 『中國文化』, 第27期, pp.144-149.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Strategy of Lu Xun's Literary Works: Take Image of Ghost in Lu Xun's Writings as Example

Huang Meilin, Ko Jum Bok

Lu Xun is known as 'the founder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Many scholars have made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 of the modernization of Lu Xun's literary works. But few of them have analyzed on a certain image or a certain subject created by Lu Xun. Among the many images created by Lu Xun, the image of 'ghost' appeared in both his early and late works. The ancient and mystical image of ghosts seems to contradict the modern literature that advocates the new culture. But Lu Xun has renovated this historical and famous image. Through the concept of 'Shensi', he associated the Chinese traditional image 'ghost' with the European 'Mara Poets' (Moluo Poets) and grafted the resistance spirit of the 'Mara Poets' into the Chinese traditional image 'ghost'. Lu Xun called this as 'Shensi Xinzong'. Lu Xun used the technique of 'Defamiliarization' to change the readers' inherent impression of 'ghost' and brought new vitality into the old image of ghost. Through this strategy, to achieve Lu Xun's goal of modernization: 'Fostering People', shaping dynamic people and remolding national character. Studying the case of how did Lu Xun reconstruct the traditional image of 'ghost' can help us to know modernization strategy of Lu Xun's literary works better.

Key words: Lu Xun, Image of ghost, Modernization Strategy, Shensi(神思), Defamiliarization

제조일본인 2세의 월경(越境)에 따른 영향 일고찰

-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를 통해 보는 '외지' 일본어와 식민지 체험이 가져온 부작용 -

일본문학·문화전공 박사과정 소리마치 마스미(反町真寿美)

1. 들어가며

발표자가 석사과정 때부터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식민지 조선 대구에서 탄생한 시인이자 작가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이다. 발표자는 원래 일제강점기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막연하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식민 2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모리사키 가즈에와 같은 2세들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간 부모 세대의 1세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패전 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이동은 그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끼쳤다.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리사키 가즈에가 지닌 조선 체험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 지난 학기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의 결여(欠如)의 심연 - '외지' 일본어와 식민지 체험이 가져온 부작용-」(「森崎和江における欠如の深淵—「外地」日本語と植民地体験がもたらした副作用—」)이라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2.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

이 연구는 일본식민지주의의 상흔이라고 할 수 있는 '외지' 일본어를 포함한 식민지 경험이 식민2세 시인 모리사키 가즈에에게 끼친 영향을 그녀의 언설이나 작품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그녀의 표현활동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일본 귀국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조선에서의 식민지체험이 미친 영향에 대해 특히 언어와 정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목적 중 하나는 일본의 식민정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피식민자 측이 아닌 '외지' 일본인(제조일본인)에게 미친 영향과 그 작용 양상을 확인 하는 것이다.

모리사키는 식민지 조선 대구에서 1927년에 태어나 1944년 17세에 진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갈 때까지 조선에서 성장하였다. 그녀가 조선에서 익힌 일본어, 그리고 조선의 풍물과 풍경을 접하면서 자란 정서와 감성이, 전후 일본에서 생활한 모리사키의 사이에서 어떠한 마찰을 가져왔을까.

그녀가 익힌 일본어는 일본 어디에도 근원지가 없는 교과서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일본어였다. 표준어로 여겨지는 도쿄에도 도쿄 사투리가 존재한다. 즉 일본 본토에는 본래 각각 지역에 뿌리를 둔 일본어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지' 일본이었던 조선에는 일본 본토의 여러 지역 출신 일본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어이자 표준어로 여겨지는 일본어가 탄생하였고, 일본 본토를 모르고 '외지'에서 태어나 자란 식민 2세대들은 교과서를 통해 그 일본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일본인'이 되도록 강요당한 피식민자들에게도 교육된 이러한 '식민지 일본어'는 어떤 지방색도 느낄 수 없는 표준 언어임이 요구된 것이다.

실생활의 흔적이 없는 '식민지 일본어'를 말하고, 조선에서 생활하면서 길러진 감수성을 체득한 모리사키는, 조국이면서도 낯선 이국인 일본에서, 많은 것과 충돌하게 되었다. 모리사키가 조선 생활로 얻은 것은 일본에서 그녀를 이질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기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본 발표자는 지난 학기 연구를 통해 일본식민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인양자(引揚者), 혹은 귀환자, 그 중에서도 모리사키와 같은 식민2세가 일본으로 귀환한 후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양상은 전쟁이 종결되고 일본인이 일본으로 '귀국'했을 뿐이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과 일본의 만남은 갈등, 알력, 마찰 등 온갖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분명히 억압과 피억압이라는 이항 대립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큰 틀만을 조감하는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리사키와 같은 일본인들의 특수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일본식민지정책은 피식민자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쟁 후 일본에서 식민자측에 속해 있던 일본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3.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발전 가능성

본 발표자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모리사키 가즈에는 전쟁 전부터 전후라는 시간의 이동,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장소의 이동을 경험하였다. 또한 전쟁 전의 조선과 전후 일본에서 여성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격차를 실감하고 행동해 왔다. 즉 그녀는 시간, 장소, 젠더 등 온갖 경계를 넘어온 것이다. 이처럼 그녀의 행동, 활동, 사고에는 어떠한 경계를 넘는 '월경(越境)'이라는 것이 항상 관련되어 있다. 이에 모리사키는 이른바 '월경인(越境人)'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월경에는 항상 많은 접촉이 따른다. 모리사키는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다양한 접촉을 경험하고, 그 접촉이 초래하는 충돌과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모리사키가 경험한 아시아에서의 시간, 장소 등 다양한 이동과 월경의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교육연구단이 제시하는 혼합, 병치, 접촉, 충돌, 융합, 전환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 트랜스의 개념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리사키 가즈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인양(引揚)'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인양'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조선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만주나 대만,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인양'과는 정반대로 모국에서 아시아 각지로 이동해 그곳에 머문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곳에서의 접촉, 충돌, 융합 등의 양상은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연구 등 정체성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한 정체성을 지닌 작가의 작품을 통한 문학적 연구도 가능하고 사회문제로도 심도 있는 연구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통해 전후에도 아시아 각지에 남겨진 일본어, 그리고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으로 월경한 일본어 등 언어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가능하다. 나아가 '아시아', '이동', '월경' 등을 키워드로 생각해도 사회, 문학, 언어 각각의 연구가 가능하고 그것들을 융합 또는 연계한 형태의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교육 연구단이 내건 트랜스의 개념은 모든 연구 분야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은 아시아 전체라는 공간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각각의 지역과 연관 지은 연구의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지역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모든 각도로부터의 연구를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

중일비교문화전공 박사과정
허원영

1. 문제의 소재

2010년대 들어 세계에서 동남아시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 및 교역 증대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동시에 핵심으로 여기는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에 주목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막대한 인프라 수요는 중국, 일본 등 대 동남아시아 해외 직접투자(FDI)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⁶¹⁾

그런데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협력 경쟁'이 해당 지역에서 환영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시아를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설정하고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시에 현지에서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2018년 미얀마와 스리랑카는 중국이 주도한 철도 건설 사업과 항구 개발 사업을 각각 중단시켰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 기업이 주도하던 동부해안 철도(ECRL)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신식민주의'로 규정하기도 했다.⁶²⁾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또한 중국의 경제협력이 대상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중국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는 '부채의 함정(Debt Trap)' 외교라 비난해 왔다.⁶³⁾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프트 파워와 이를 도구로 해서 벌어지는 경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시기부터 공식문서에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⁶⁴⁾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일대일로' 역시 5대 전략 중 하나인 '민심상통(民心相通)'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상대국 외교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ASEAN을 전략적 중점 지역으로 지목한 바 있다.⁶⁵⁾ 반면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파워 확대 전략을 1970년대에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국제교류기금 설립(1972년), 후쿠다 독트린 발표(1977

61) ASEAN의 통계(<https://www.aseanstats.org>)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SEAN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FDI)는 일본, 미국, 중국이 수위를 다투고 있으며, 인프라 분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일본이 1위를 점하고 있다.

62) 오광진, 「중-아세안 고속열차 사업 지지부진」『Chindia Plus』포스코경영연구원, 2018.09/10, pp.14-15.

63) *South China Morning Post*, 13 September, 2018. 그러나 많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반드시 '부채 함정' 외교를 의도하고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국가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Lee Jones and Shahar Hameiri, "Debunking the Myth of 'Debt-trap Diplomacy': How Recipient Countries Shap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sia-Pacific Programme Research Paper, Chatam House, August 2020.

64) 변창구, 「중국의 동남아외교와 '소프트파워(soft power) 전략」『한국동북아논총』61, 2011, pp.9-10

65) 이승신 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p.137-138.

년) 등을 통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오랜 투자와 문화외교는 오늘날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연구소(ISEAS)'가 2021년 발표한 동남아시아 현황 보고서는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가지는 힘을 잘 보여준다. “일본이 글로벌 평화, 안보, 번영, 거버넌스 공헌을 위해 ‘옳은 일’을 할 거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ASEAN 회원국 사람의 비율은 67.1%인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16.5%밖에 되지 않았다. EU와 미국 역시 각각 51.0%, 48.3%로 일본에 미치지 못했다. “미중 경쟁의 불확실성에 대한 헤징(hedge)에서 가장 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는?”이라는 질문 역시 일본이라는 응답이 39.3%로 2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3.2%에 머물렀다.⁶⁶⁾ 이처럼 한국은 한류 등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마음을 사로잡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인 존재감 역시 상당히 낮다. 90년대 들어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시작한 한국은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일본이 동남아시아 외교에서 소프트 파워 및 문화를 강조하게 된 변화에 대해 1977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가 제창한 '후쿠다 독트린'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대다수 연구는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문화외교의 기원을 '후쿠다 독트린'으로 잡고 있으며,⁶⁷⁾ 70년대의 국제환경과 동남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초점을 맞춘 다른 연구의 경우에도 70년대 초반, 특히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수상이 동남아시아 방문 중 격렬한 반일 데모에 부딪히게 된 74년 이전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에 착안하는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⁶⁸⁾

본고는 5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동남아시아에 대일 '경제지배' 인식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일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자 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배상외교로 대표되는 전후 일본의 경제협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전후 탈식민지화와 국가건설에 뛰어든 아시아 신흥국들은 내셔널리즘과 공산주의에 의한 위기와 항상 맞닿아 있었으며, 일본의 대 아시아 경제협력이 "그러한 위기를 멀리 떼어 놓으면서 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자각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⁶⁹⁾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인과관계를 단순화하여 일본의 경제협력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의 경제협력은 항상 정부 자금과 민간의 투자가 함께 움직였으며, 정부개발원조에는 냉전 전략과 지역의 안정화라는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일본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지원이나 자원의 안정

66) 전자의 질문은 역내 강대국(major power)를 대상으로 한 것인 관계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EU(40.8%), 일본, 호주(7.5%), 인도(6.6%), 한국, 영국(2.6%)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ISEAS,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urvey Report."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1, p.34, p.50.

67) 나승권 외,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시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若月秀和「福田ドクトリン—ポスト冷戦外交の「予行演習」」『国際政治』第125号、2000、pp.197-217; Sueo Sudo, *Fukuda Doctrine and ASEAN: New Dimensions in Japanese Foreign Policy*, Singapore: ISEAS, 1992.

68) 이기완,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의 동학」 『국제정치연구』14(1), 2011, pp.301-320; 須藤季夫 「「アイディア」と対外政策決定論—福田ドクトリンをめぐる日本の政策決定過程」 『国際政治』第108号、1995、pp.131-147; 波多野澄夫・佐藤晋 『現代日本の東南アジア政策 1950-2005』早稲田大学出版会、2007、pp.164-180; Sueo Sudo, *Japan's ASEAN Policy: In Search of Proactive Multilateralis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5.

69) 예를 들어, 波多野澄夫・佐藤晋、前掲書、2007、p.viii

공급 등 중층적이고 때로는 모순되는 정책 목표가 투영되어 왔기 때문이다.⁷⁰⁾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이 만든 '경제지배' 이미지에 주목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일본의 경제협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⁷¹⁾

둘째는 성장하는 아시아에 쏟아지는 선진국의 '경제협력'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정부개발원조(ODA)와 대외직접투자(FDI), 기술협력 등을 통한 경제협력은 주로 수원국 경제발전 공헌과 상호관계 개선의 효과가 주목을 받아왔을 뿐,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인 영향력의 강화는 양면적인 효과를 가지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늘리기 위한 '소프트 파워'⁷²⁾ 측면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⁷³⁾ 즉 '무엇을 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줄 것인가(manner of giving)'의 문제 역시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⁷⁴⁾ 이는 현재 동남아시아를 '미중 경쟁 사이에서 활용해야 할 도구적 대상'으로 보는 오늘날 한중일의 주류적 시각

70) 서승원, 『북풍과 태양: 일본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pp.29-31

71) 최근에는 전후 일본의 경제협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大庭三枝「日-東南アジア間の歴史認識をめぐる諸相」『アジア研究』第66巻、第4号、2020、pp.68-87.

72) 본고의 분석에서는 소프트 파워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는 소프트 파워의 성격이다. 조지프 나이(Joseph S. Nye)는 소프트 파워를 '의제를 설정하고, 설득하고, 매력을 보이는 흡인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ジョセフ・S・ナイ、山岡洋一訳 『ソフト・パワー 21世紀国際政治を制する見えざる力』日本経済新聞社、2004、p.10. 그러나 소프트 파워에는 이러한 '힘(power)'의 현실주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성주의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즉, "소프트 파워는 타자가 보는 자기의 이미지와 이념, 정책에 대한 평가로 얻어지거나 잃는 것"이다. 손열, "소프트파워의 정치: 일본의 서로 다른 정체성" 『일본연구논총』29, 2009, p.52.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는 주로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정책으로서의 소프트 파워)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나, 소프트 파워 역시 군사력, 경제력처럼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나이는 소프트 파워의 원천(resources)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 홍보조직, 외교, 공공외교, 원조 계획, 교류 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얻어내는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개별적 또는 일반적인 '소프트 파워'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 Joseph S. Nye.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pp.99-100. 셋째는 그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소프트 파워는 그 용어 자체가 탈냉전기에 고안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후의 시대에 적용되어 왔으나, 고안자인 나이 스스로 지적하듯 소프트 파워는 "냉전의 승리에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역사 속에서 국가의 소프트 파워 축진에 중요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작동해 왔다. Joseph S. Nye. "Soft Power and Public Diplomacy Revisited."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14, 2019, p.7. 이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전후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손상되었으며, 문화외교를 통해 이를 어떻게 회복하고자 노력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73) "하드 파워로 성공을 거둔 경우, 보통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소프트 파워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강제력은 저항을 불러일으켜 큰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Robert Cooper. "Hard Power, Soft Power and the Goals of Diplomacy." in David Held and Mathias Koenig-Archibugi eds., *American Power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p.175. 이 지적은 주로 강제력(coercion)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경제력과 소프트 파워 간의 관계가 일방향이거나 선형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인 결합(soft-economic power nexus)을 구성하고 있다는 분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Daniele Carminati. "The economics of soft power: reliance on economic resources and instrumentality in economic gains,"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2021, p.5. 즉, 경제적 영향력의 증대는 반드시 관계개선 등의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반발의 감정(a feeling of resentment)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소프트 파워 축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Wei Liang. "China's Soft Power in Africa: Is Economic Power Sufficient?" *Asian Perspective* 36, 2012, p.683. 본고는 바로 이 충돌의 지점에서 경제협력 공여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려 하는가(즉, 소프트 파워의 강화)에 주목한다.

74) Dennis T. Yasutomo, *The Manner of Giving: Strategic Aid and Japanese Foreign Policy*,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6.

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한다. 첫째, 전후 일본의 동남아시아 '재진출'에 대해 살펴보고, 상사(商社)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제지배'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한다. 둘째, 일본의 문화외교를 개관하고, 동남아시아의 대일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성'을 띠고 실행한 대외 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74년 반일폭동 이후 77년 후쿠다 독트린까지의 흐름과 함께, 일본 사회에서 문화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문화외교가 활발해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지배' 이미지의 형성

2.1 일본의 배상 외교와 동남아시아 '재진출'

전후 일본의 경제협력은 크게 세 가지 배경을 두고 있다. 첫째는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을 '아시아의 공장'으로 만들어야 했던 미국의 냉전 전략, 둘째는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본의 '경무장 중상주의' 노선, 셋째는 패전 후의 반군사주의와 평화헌법이라는 일본 국내의 사회적/제도적 제약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로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경제협력을 주요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의 최중요 과제였던 전후 처리 및 배상의 대상은 대일본제국의 판도 안에 있었던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이 복귀한 아시아는 '미국의 아시아'였고, 이는 곧 중국으로의 접근이 차단된 아시아를 의미했다.⁷⁵⁾ 중국과 한국은 전후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의 토대가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 당사국이 아니었고, 한국,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는 국제환경 및 각국의 국내적 조건이 정비될 때까지 지연되었다.

따라서 주권 회복 직후인 50년대 일본의 아시아 정책이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동남아시아였다. 일본은 54년 버마(미얀마)를 시작으로, 필리핀(56년), 인도네시아(58년), 남베트남(59년) 등과 배상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했다. 이들 국가 외에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준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무상경제협력을, 전시에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태국에 대해서는 당시 발행했던 특별엔(特別円)의 정산으로 경제협력을 행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60년대 들어 무상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배상 및 준배상적 경제협력(유상, 무상을 모두 포함)은 모두 합쳐 4,320억 엔에 이르렀다.⁷⁶⁾

그러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배상 교섭은 몇 가지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난항을 겪었다. 먼저 동남아시아 각국은 당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버마, 남베트남 4개국이 요구한 대일배상요구액은 합계 332억 달러로, 당시 일본 국민총생산(GNP)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다음

75) 楠綾子「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とアジア—一九四五～五二年」宮城大蔵編『戦後日本のアジア外交』ミネルヴァ書房、2015、p.53

76) 原朗「戦後賠償問題とアジア」大江志乃夫他『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8：アジアの冷戦と脱植民地化』岩波書店、1993、pp.269-289

으로 교섭 초기 일본의 국내 여론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배상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싸운 상대는 미국과 영국 등의 식민지 종주국이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의 신흥독립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50년대에도 '식민지 해방'을 위한 '대동아전쟁'의 이념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와 배상 및 준배상 교섭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점차 일치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의 경우, 정치가와 관료들은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배상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배상의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니라 일본 기업에 발주하여 상대국에 공장 등을 건설하는 역무의 형태로 제공되었다.⁷⁸⁾ 이러한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은 인프라의 건설에서 유지보수까지 일본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는 현지에서 일본 기업이 경제적으로 재진출하기 위한 절호의 '교두보'가 된 반면, 배상이 본래 가져야 할 '속죄' 의식을 희박하게 했다.⁷⁹⁾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신흥독립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국가 건설과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는 권위주의적인 국가 정치 엘리트들이 일본에 대한 국내의 비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⁸⁰⁾ 이 두 가지 요인은 일본의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한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일 비판이 폭발하는 배경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2 정상(政商)과 상사(商社), 그리고 '경제지배' 이미지

2.2.1. 냉전 하의 경제협력과 정상(政商)

본 절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일본의 '경제지배' 이미지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는 유무상을 포함한 일본의 경제협력 금액이 동남아시아에서 수위를 다투는 국가이며, 일본에 대한 반감이 대규모 폭동으로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배상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한 시기에 일본의 총리 자리에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957.2-1960.7 재임)이다. 기시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 더 나아가 자주외교를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이 중요하다 여기고, 전후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동남아시아 순방(57년 5월과 11월 두 차례)을 하며 대 동남아시아 외교에 힘을 기울였다.⁸¹⁾ 기시는 본래 미국을 포함한 국제협력을 표방하며 '동남아시아개발기금' 구상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Sukarno) 대통령에 대한 적대 정책을 펴기 시작한 57년 후반부터는 지역협력 구상을 포기하고 양자 간의 배상과 경제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산화 저지를 꾀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⁸²⁾

1958년 1월 20일,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와 수반드리오(Subandrio)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배상 협정 조인이 이루어졌다. 총액 2억 2308만 달러에 이르는 일본과 인

77) 宮城大蔵「『ナショナリズム時代』のアジアと日本—一九五〇年代—」宮城大蔵編『戦後日本のアジア外交』ミネルヴァ書房、2015、pp.93-94

78) 宮城大蔵「アジアの変容と日本外交」波多野澄雄編『日本の外交 第2巻 外交史 戦後編』岩波書店、2013、pp.149-151

79) 宮城大蔵「日本と東南アジア」川中豪・川村晃一編『教養の東南アジア現代史』ミネルヴァ書房、2020、pp.331-332

80) 大庭三枝、前掲論文、2020、pp.68-87.

81) 権容英「岸の東南アジア歴訪と「対米自主」外交」『一橋論叢』第123巻第1号、2000、pp.170-189

82) 波多野澄雄・佐藤晋、前掲書、2007、pp.61-62

도네시아의 배상액(경제차관 4억 달러 제외)은 매년 약 2천만 달러씩 지불되는 구조였는데, 그 용도는 매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본의 업자가 직접 교섭하는 형태로 정해졌고 일본 정부는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직접계약' 방식은 자연스럽게 사업 계약을 위한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⁸³⁾

이러한 초기 경제협력의 구조가 동남아시아의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이른바 '정상(政商)'의 암약을 초래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만철(滿鉄) 시절부터 기시와 친교가 있던 기노시타 산쇼(木下産商) 사장 기노시타 시게루(木下茂)이다. 58년 2월, 배상 계획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올 예정인 중고선 10척 중 9척에 대해 기노시타 산쇼의 입찰이 이미 정해져 있었음이 알려졌다. 기노시타는 수카르노 대통령의 측근이자 화교 상인인 C. M. 초(Chow)라는 인물을 통해 선결 계약을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같은 달 방일한 수카르노 대통령과 기시의 만남에 기노시타가 동석하여 3자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배상을 둘러싼 부정 의혹을 받았다.⁸⁴⁾

이 시기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본 정상(政商)의 접근은 단순히 개별 안건의 수주를 넘어 정치 지도자와 밀월관계를 구축하는 수준에 있었다. 전전(戰前)부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고노 이치로(河野一郎),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등을 임원으로 두고 이토추 상사(伊藤忠商事)와 거래 관계에 있던 도니치 무역(東日貿易)은 수카르노의 세 번째 부인으로 라트나 사리 데비(Ratna Sari Dewi, 일본명 根本七保子)를 소개하고, 데비 부인을 창구 역할로 삼아 배상 안건의 조성 및 추진에 관여했다. 이러한 관계는 1965년 9.30 쿠데타로 수카르노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이어졌다.⁸⁵⁾ 정상(政商)의 암약과 상사의 활동으로 자카르타에 주재하는 일본 기업의 사무소(지사)는 1958년 16개사에서 1960년대 중반에는 60개사 수준으로 증가했고, 배상과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한 일본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본격화되었다.⁸⁶⁾

일본의 경제협력과 기업의 진출은 60년대 중반 이후 보다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해양부 동남아시아에서 '탈식민지화'를 벗어나 '경제개발'을 국가 목표로 삼는 기운이 일어난 것이다. 65년에는 친공-친중 정책을 폈던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정권이 붕괴하고 반공-친미를 내세운 수하르토(Suharto) 정권이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67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반공을 공통 가치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결성되었다. 둘째는 60년대 중반부터 격화한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전쟁, 즉 베트남 전쟁이었다.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한 미국의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는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자금을 쓸 여력이 없었고, 이는 일본에 대한 동남아시아 원조 증대 요청으로 이어졌다. 67년, 미국은 오키나와(沖繩)의 반환을 요청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정권에게 그 조건으로 동남아시아 원조 증강을 내세웠다.⁸⁷⁾ 동남아시아의 변화와 미국의 압력에 부응하여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인 지원

83) 西原正「国家間交渉における「非正式接触者」の機能 - 日本とアメリカの対外交渉を中心に」『国際政治』第50号、1974、pp.73-74

84) Masashi Nishihara, *The Japanese and Sukarno's Indonesia: Tokyo-Jakarta Relations 1951-1966*,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5, pp.102-115; 第31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10回 昭和34年2月13日; 第31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11回 昭和34年2月14日

85) Masashi Nishihara, *ibid.*, 1975, pp.115-117; 八代拓「戦後日本のインドネシアへの経済進出過程 : 冷戦と脱植民地化の過程における民間経済外交」一橋大学 博士学位論文、2017、第3章第2節

86) 倉沢愛子『戦後日本 = インドネシア関係史』草思社、2011、p.213

87)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원조를 촉진할 것.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의회의 소극적 반응에 곤란해하고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아시아개발은행의 기금을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2억 달러 거출하기를 바란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원조도 요청하고 싶다." 若泉敬『他作ナカリシヲ信ゼ

을 아끼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해외로부터 받는 원조의 1/3에 달하는 금액으로 수하르토 체제를 뒷받침했다.⁸⁸⁾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2년 시점에 ASEAN 국가 전체의 대일 무역의존도는 21.8%에 달했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4개 국가의 첫 번째 무역상대국은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다.⁸⁹⁾

2.2.2.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제지배' 이미지 형성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 집중'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가건설과 내셔널리즘에 맞물려 '경제지배'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무역 분야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문제가 된 것은 1) 과도한 대일 무역 적자 2) 천연자원에 편중된 일본의 수입 3) 종합상사의 과도한 저가 매입(買い叩き)과 매입 중단(買い控え)이었다. 이 문제는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66년 이후로 수입초과가 지속되면서 ASEAN 국가 중 가장 큰 대일 무역적자를 안고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경우, 73년 기준으로 일본에 수출한 품목 1위는 원유(총 수입의 50.4%), 2위는 목재(27.7%)였다. 동남아시아 전체로 보았을 때, 일본은 ASEAN 5개국으로부터 천연고무의 98%, 주석 및 주석 합금의 96%, 목재의 32%를 의존하고 있었다.⁹⁰⁾ 이에 더해 이윤만을 쫓는 종합상사의 투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저가 매입과 매입 중단은 대일 수출의 안정적 수요를 기대할 수 없게 했고,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원료 공급지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을 낳게 했다.⁹¹⁾

둘째는 투자, 즉 일본 기업의 경제 진출이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 기업은 특정 업종을 과점화(寡占化)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있었다.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중 투자총액의 약 80%는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화학섬유, 오토바이 등은 태국 국내 생산의 100%를 점했다. 이로 인해 일본 상품이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까지 '범람'하면서 '경제지배' 이미지를 강화했다.⁹²⁾ 기업 진출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과도한 이윤 추구하고 자본의 단기 회수 태도가 현지 국가의 필요와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낮은 상품 마진과 많은 해외 지사, 짧은 매출 측정 기간으로 인해 매출 확대와 상품 회전률 증가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 일본 종합상사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었으나,⁹³⁾ '일본인=경제동물'이라는 인식을 가속화했다.⁹⁴⁾ 현지 권력과 일본 기업의 유착 또한 주된

ムト浴ス』文藝春秋、1994、p.97

88) 宮城大蔵、前掲書、2020、pp.332-335

89) 『読売新聞』1974년1월4일. ASEAN은 84년 브루나이가 가맹할 때까지 67년 창설 당시의 5개 회원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으로 유지되었다.

90) 井原伸浩「1970年代東南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経済支配」イメージの再検討」『メディアと社会』第8号、2016、pp.1-16

91) 사실 '원료공급지로서의 동남아시아'는 고도경제성장기에 들어선 일본이 어느 정도 의도한 결과이기도 했다. 60년 '소득배증계획'을 내세우며 수상이 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는 '무역상사간담회'에서 "정책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제1차산품(농광산품)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본의 수출도 활발히 할 것"이라 발언했다.『朝日新聞』1961년1월26일. 경제계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 무역상사간담회는 64년 2월 동남아시아로 '1차산품 매입촉진 종합조사단'을 파견하고 결과 보고서를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에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동남아시아 수출 증진의 '열쇠'가 천연자원(1차산품) 매입에 있으며, 이를 위해 1) 1차산품 개발을 위한 '농업기술 원조' 확대 2) 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 '신남방개발수입은행' 설립 3) 정부 보유 외화 대출 4) 동남아시아 각국과 정기적인 경제회의 개최 등을 제안했다. 『読売新聞』1964년7월9일

92) 井原伸浩、前掲論文、2016、pp.8-10

93) 고재경, 「綜合貿易商社の機能에 관한 考察」『무역학회지』제4호, 1979, pp.187-188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자본에 의존하는 수하르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감과 수하르토 독재 체제를 지지하는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합쳐져 더욱 큰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⁹⁵⁾

셋째는 원조 분야이다. 전술한 미국의 냉전 전략과 압박으로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원조액은 갈수록 증가했다. 71년 기준으로 ASEAN 5개국이 공여받은 원조총액 중 24%가 일본의 ODA였고, 그 금액은 72년 10억 달러에서 76년 16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미국을 넘어섰다.⁹⁶⁾ 이렇게 막대한 원조 비중은 일본의 '경제지배'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다. 경제 원조의 운용에 있어서도 업자의 로비가 현지 정부 및 관료의 부패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기업이 합작 기업 설립이나 원조 프로젝트 획득을 수월하게 하고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정권 루트가 아닌 대통령 개인 보좌관(ASPRI)과 접촉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에 폐쇄적인 로비 관계와 거액의 리베이트를 발생시킨다는 비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⁹⁷⁾

이러한 배경에서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 초에 걸쳐 일본의 '경제지배'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현지에서는 이미 66년 시점에 일본 기업이 "돈 버는 일에만 기민한 '경제적 동물'"이며 "(물건) 파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현지인의 구매력을 늘릴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⁹⁸⁾ 71년 1월 요미우리(読売) 신문이 아시아 11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에서는 '일본'에서 연상되는 것으로 '선진공업국' '원폭피해국'에 이어 '경제적 동물'이 3위를 차지했다.⁹⁹⁾ 오카베 다쓰미(岡部達味)는 이렇게 대일 비판이 격화한 이유로 '약한 현지 정부와 사회의 기능'을 지적하면서, 비판의 유형으로 1) 경제지배(경제적 주권 침해), 2) 자원 약탈, 3) 무역적자, 4) 일본만의 고도경제 성장, 5) 공해산업의 수출, 6) 일본 기업과 현지 정권 또는 지배층과의 결탁, 7) 현지 합병 파트너의 화교 편중, 8)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이윤 지상주의, 9) 저임금 노동력 착취, 10) 기술 독점, 11) 경제 이외의 이미지 부재, 12) 폐쇄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들고 있다.¹⁰⁰⁾

2.3 문화외교의 '전략성'과 동남아시아

전후 일본의 문화외교는 다른 분야의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전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전의 정보 통제와 문화 통제의 역사에 더하여, 경제협력과 개발원조를 중시하면서 문화를 다른 국가에 행사하는 '힘'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신중하거나 소극적이었다. 이

94)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는 용어는 1965년 파키스탄의 부토(Zulfikar Ali Bhutto) 외상이 일본의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했으나, 일본에서 그 의미가 왜곡되어 '이윤 추구를 제일로 활동하는 인간'의 멸칭으로 받아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多賀敏行『「エコノミック・アニマル」は褒め言葉だった - 誤解と誤訳の近現代史』新潮新書, 2004. 그러나 본고의 맥락에서는 60년대 말부터 일본의 경제 진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일본인의 멸칭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95) 佐藤晋『田中東南アジア歴訪の意義 -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過程における東南アジアと日本』『国際政経論集』第15号, 2009, pp.110-111

96) 井原伸浩, 前掲論文, 2016, p.13

97) 『読売新聞』1974年3月23日

98) 『読売新聞』1966年3月5日

99) 이러한 인식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의 경제진출이 저조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3%대에 머무른 반면, 태국은 27.8%, 남베트남은 13%, 싱가포르는 11%의 응답자가 '경제적 동물'을 꼽았다. 『読売新聞』1971年1月1日

100) 岡部達味『東南アジアと日本の選択 - 「反日」の構造と中国の役割』日経新書, 1976

려한 유산의 반동으로 '문화외교'를 "박애주의적인 자선활동과 계몽주의적인 이문화(異文化) 이해 활동 등 주변적이고 2차적인 서비스"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¹⁰¹⁾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이후 아시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문화외교 역시 많은 부분에서 '일반 대중이 알기 쉬운 것'을 중시한 '생활과 예능' 영역의 문화 사업이었고, 현지 재외공관과 외무성, 그리고 국제문화진흥회(国際文化振興会)¹⁰²⁾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대상은 냉전적 배경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¹⁰³⁾

그러나 60년대 들어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선진공업국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문화, 기술, 교육 방면에 공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한편,¹⁰⁴⁾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해 어느새 "일본 측의 작은 변화로 인해 교류 상대가 받게 되는 커다란 충격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로 변해 있었다.¹⁰⁵⁾ 이러한 '자기인식'과 '상대인식' 사이의 괴리는 1970년대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마찰을 초래했고, 일본은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71년판 외교청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¹⁰⁶⁾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입장으로, 객체에서 주체로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결의와 행동은 세계의 대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동향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국가가 경계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때로는 마찰의 원인이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이다.

외교청서는 이어서 "해외의 여론에 대해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문화외교를 강조하면서 "아시아 지역 등에 대한 교육 협력, 유학생 수용 체제 정비 등 지적 및 인적 교류"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¹⁰⁷⁾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은 동남아시아와의 문제를 국익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문화외교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¹⁰⁸⁾ 전반적으로 '박애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이라 평가되는 전후 일본의 문화외교가 자국의 국익과 관련하여 '전략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72년 10월 '상호이해 촉진'을 목표로 하는 문화교류 전문 정부기

101) 渡辺靖「日本らしさとは何か—アイデンティティと文化外交」『外交フォーラム』第252号、2009、p.12
 102) 국제문화진흥회(KBS)는 1934년 창설되어 전후에도 문화외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 패전 직후인 46년 민간 기관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재출발했으며, 주권을 회복한 이후인 53년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대외문화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했다. 72년 국제교류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大木裕子「戦後日本の芸術分野における国際文化交流」『文化経済学』第3巻第2号、1998、pp.87-96
 103) 이러한 생각은 57년 기시 노부스케 당시 외상(外相) 주재로 열린 '문화외교간담회'에서도 보인다. 이 민간 자문회의에서는 일본문화에 이해가 있는 영미 등 서구권이 아닌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読売新聞』1957年4月16日.
 104) 외무성은 문화사업부를 발족시키면서, 문화외교의 방향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국에는 일본의 근대공업국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미 대상으로는 일본 전통 문화와 국민 생활 실정 소개에 주력"함을 표방했다.『朝日新聞』1964年7月28日
 105) 渡辺昭夫『戦後日本の外交政策』有斐閣、1985、p.159
 106) 外務省『昭和46年版 わが外交の近況』1971、第1部第2章第2節
 107) 外務省『昭和46年版 わが外交の近況』1971、第1部第2章第6節
 108) 이 시기 외무성의 문화사업 예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67년 4억 엔에 불과했던 예산은 4.7억 엔(68년), 6.2억 엔(69년), 6.5억 엔(70년), 8.7억 엔(71년)으로 증가했고, 동남아시아의 대일 비판이 폭발하기 시작한 72년에는 61.2억 엔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김필동,『전후 일본의 문화외교 연구』소명출판, 2014, p.249

관으로 설립된 국제교류기금(國際交流基金)이다. 이 기금의 설립 배경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후의 ‘기술 측면의 국제협력’에 이은 ‘문화 측면의 국제협력’이 선진국의 책무라는 ‘문화외교의 구체화-명확화’와 더불어, 경제에 집중한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왜곡된 대일 이미지가 퍼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최종점 지역으로” 한다는 설립 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70년대 미중 관계회복으로 대표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일본기업의 진출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반일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하고 대 동남아시아 문화외교를 강화한 것이다.¹⁰⁹⁾ 당시 기금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후쿠다 다케오 외상은 경제 마찰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문화교류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¹¹⁰⁾

일본은 문화외교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문화사절단을 여러 차례 파견하여 대 동남아시아 문화교류와 함께 일본 이미지의 개선을 도모했다. 71년 7월 파견된 제1차 사절단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5개국을 방문하고,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와 새로운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¹¹¹⁾ 72년에는 2차 사절단이 17일간 파견되었으며, 73년 3월 파견된 3차 사절단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의원을 단장으로 인도네시아, 버마, 남베트남 3개국과 홍콩을 방문하고, 각국의 외무장관 및 문부장관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¹¹²⁾

일본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다. 태국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던 72년 10월에는 태국 방콕에 킥복싱 도장을 개설한 일본인 사장에게 폭행과 협박장이 날아들었고, 권총 3발이 도장에 발사되었을 뿐 아니라 향의 데모가 유리창을 부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태국의 국기(国技)를 일본이 역수출했다는 내셔널리즘적인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¹³⁾ 73년 12월에는 자카르타의 도요타-아스트라 모터 본사 빌딩에서 학생 그룹이 데모를 벌였는데, 일부 학생은 빌딩 옥상에 올라가 도요타 광고 위에 인도네시아 국기를 걸기도 했다. 이 빌딩은 일본의 배상 자금으로 지어졌음에도 대부분의 사무실에 일본계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¹¹⁴⁾

3. 후쿠다 독트린과 문화외교의 강화

3.1 다나카 수상의 동남아시아 방문과 반일폭동

109) 岸清香「対アジア文化政策と現代美術－国際交流基金における美術事業の新展開」『都留文科大学研究紀要』第90集、2019、p.22

110) 佐藤晋、前掲論文、2009、p.112. 이러한 생각은 문화외교의 실무를 맡은 이들 역시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교류기금 설립 법안 심의에 국제문화진흥회를 대표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야마다 마사하루(山田正春, 이후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국제센터 부소장 역임)는 "대국이라는 의식은 곧 인종상의 편견이나 오만함과 연결되어 외국으로부터 통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근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하는 비판으로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설명하고 국제교류기금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第68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8回 昭和47年4月14日

111) 『朝日新聞』1971年7月18日; 김필동, 위의 책, 2014, p.278

112) 『朝日新聞』1973年3月20日

113) 『読売新聞』1972年10月18日

114) 枝村純郎「田中総理のインドネシア訪問と「反日」暴動」『外交フォーラム』2008年6月、pp.64-69

72년 7월 수상에 취임한 다나카 가쿠에이는 미중 관계개선의 충격 속에서 중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낸 뒤인 74년 1월에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이때 인도네시아, 태국 두 나라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일데모와 마주하게 되었다. 태국에서는 1만 명 규모의 항의 데모가 이루어졌으며, 200명 규모의 시위대가 다나카가 체류하는 방콕의 호텔을 둘러싸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공항 도착 시에 100-200명의 학생에 의한 반일 항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마지막 방문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항의 데모가 격화하여 일본제 자동차에 방화하는 등의 폭동으로 번졌고 일본대사관은 일본 국기를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하르트 정권은 군을 동원하여 데모를 진압하였고, 다나카 수상은 헬리콥터로 호텔에서 공항까지 이동하였다.¹¹⁵⁾ 이때의 폭동으로 사망자 11명을 비롯해 140여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파괴되는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 일본 사회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일본의 동남아시아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75년 2월 제75회 국회에 제출된 외무성의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국제교류기금의 확충 강화' 및 '유학생 수용 체제 충실 강화'라는 항목이 있고, 이 중 유학생 관련 항목에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일 비판을 염두에 두고 유학생 대책의 충실 강화를 비롯한 여러 시책을 조속히 실시한다"는 설명이 붙여져 있었다. 특히 해당 항목은 전년도 1억 8200만엔에서 3억 3700만엔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일본은 7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 온 문화외교 정책을 재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실행에 옮겼음을 알 수 있다.¹¹⁶⁾ 또한 1974년 8월에는 일본의 대외 원조 체계 중 기술협력(인적교류)에 속하는 해외기술사업단, 해외이주사업단, 해외농업개발재단, 해외무역개발협회(일부)를 통합하여 국제협력사업단(JICA)이 설립되었다. 이 역시 동남아시아의 반일 감정이 보여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조 정책의 관민 연계를 유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다.¹¹⁷⁾

3.2 후쿠다 독트린과 그 이후의 문화외교

1976년 12월 수상에 취임한 후쿠다 다케오는 77년 8월, 동남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장소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설을 했다. 이후 '후쿠다 독트린'으로 불리게 된 이 연설의 골자는 ①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②동남아시아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상호신뢰관계'를 확립한다 ③ASEAN 국가와 인도차이나 3국과의 상호신뢰를 양성하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문화외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된다. 50억 달러 규모의 ASEAN 문화기금은 후쿠다 독트린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며, 외무성 청년 초빙 사업(79년부터), ASEAN 청년 장학회(79년 표명, 81-89년 동안 매년 100만 달러 공여)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80년대로 이어지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115) 佐藤晋、前掲論文、2009、pp.114-116

116) 第75回国会 参议院 外務委員会 第5回 昭和50年2月25日

117) 国際協力事業団『国際協力事業団25年史 人造り国造り心のふれあい』国際協力事業団、1999年、p.43. 동남아시아에 대한 문화외교에서는 이 시기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일본 기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도요타 자동차가 100억 엔을 거출하여 1974년 설립된 도요타 재단은 주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수행했다. 1976년부터 2004년까지는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1978년부터 2003년까지 번역출판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시아 소설 등의 일본어 번역 출판과 일본 소설/학술서의 동남아시아어 출판 등을 수행했다. 牧田東一「日本のNew Public Diplomacy? 民間財団のアジア地域での多角的知識人交流事業を考える」『桜美林論考 法・政治・社会』第7号、2016、pp.11-13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또한 “일본과 ASEAN 5개국의 관계를 대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선언한 후쿠다 독트린이 일본의 동남아시아 정책에 체계성을 부여하고, ASEAN의 제도적, 정치적 복원력 형성에 기여한 것은 후쿠다 독트린의 성과라 할 수 있다.¹¹⁸⁾

일본 국내에서 80년대는 고도경제성장의 폐해(공해 문제, 환경 문제, 석유위기 등)를 거치면서 ‘생활의 질’ ‘마음의 풍요’가 요구되던 시기였다. ‘문화의 시대’라는 슬로건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으로, 이는 후쿠다 다케오의 뒤를 이어 수상에 취임한 오히라 마사요시의 정책연구회 ‘문화의 시대 연구 그룹’의 보고서 <문화의 시대>에 유래한다.¹¹⁹⁾ 즉, 60-70년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조건을 확보한 일본 사회는 문화적 환경의 향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변화는 문화외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70년대 말 ‘후쿠다 독트린’으로 ‘문화교류’라는 큰 방향성을 정한 대 동남아시아 문화외교는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된다. ASEAN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81년 표명), ASEAN 지역연구 진흥계획(82년 설립), 21세기를 위한 우정 계획(83년 발족), 동남아시아 문화 사절단(87년 11월 파견), 일본-ASEAN 통합교류계획(87년 12월 제창)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정책들이다.¹²⁰⁾

80년대의 대 동남아시아 문화외교는 1987년 다케시타 노보루 수상이 아세안을 방문했을 때 행한 연설에서 피크를 이루었다. 다케시타 수상은 새로운 대 동남아시아 외교방침의 하나로 ‘문화 및 인물 교류의 추진’을 제창하고, 이듬해에는 이를 발전시켜 문화교류정책을 외교 전체의 3개 기둥 중 하나로 인식하는 ‘국제협력구상’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류사업 확대와 양방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ASEAN 종합문화교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 수상 직속 자문위원회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간담회’는 후쿠다 독트린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①문화교류는 상호이해에 의한 평화구축의 수단, ②세계에 공헌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교류, ③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정부 간 연계 필요성, ④지구환경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을 제언했다. 1989년에는 ‘국제협력구상’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국제교류기금 아세안 문화센터가 설치되기에 이른다.¹²¹⁾

4. 결론

오늘날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에 대한 배상외교와 경제협력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70년대 후반의 후쿠다 독트린 이후에는 다른 역외 국가들이 넘보기 어려운 정도로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과연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가? 일본의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패전 이후 일본은 배상 외교를 통해 동남아시아 '재진출'을 꾀했으며, 그 시작 지점에서 일본, 현지 국가 또는 양쪽에 연결고

118) 스린·스피완 「福田ドクトリンの今日的意味を考える」『國際問題』第567号、2007、pp.46-54.

119) 根木昭 『日本の文化政策—「文化政策学」の構築に向けて』勁草書房、2001、p.37

120) 스린·스피완、前掲論文、2007、p.51

121) 日本國際文化交流研究会 『戦後日本の國際文化交流』勁草書房、2005、pp. 63-68

리를 가지는 경제인(政商)의 관여를 허용했다. 이는 이후에도 권위주의 권력과의 유착관계로 이어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신을 낳았다. 둘째로 경제협력과 함께 진행된 일본의 경제 진출은 일본의 '경제지배' 인식을 형성했다. 일본 기업(상사)은 무역, 투자, 원조의 각 분야에서 과당경쟁과 정경유착을 통해 '경제동물' 이미지를 만들었고, 정부는 때로 이를 뒷받침했다. 셋째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배' 인식으로 인한 현지의 반일 감정을 불식하기 위해 '전략성'을 가진 문화외교 강화를 추진했다. 넷째로 70년대 초반에 형성된 '대응으로서의 문화외교'는 후쿠다 독트린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교의 틀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80년대 일본 사회의 변화와 함께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프트 파워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은 그 출발점인 배상외교에서부터 정치와 경제가 결합한 형태로 일본의 '경제 진출'을 가속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지배' 이미지가 고착화하면서 대 동남아시아 관계를 저해하고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일본의 대 아시아 경제협력이 수원국의 '일본형 경제성장'과 '지역 안정'으로 직결되기보다는 여러 굴곡을 거쳐 왔음을 말해준다. 둘째, 경제협력은 반드시 '원조'와 '투자'를 시작하고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일 수 없으며, 그러한 경제력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말해준다.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유(Pierre Corneille)의 말을 빌리자면, 경제협력에 있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The manner of giving is worth more than the gift). 일본은 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훼손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사태를 경험했으며, 문화외교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¹²²⁾ 이는 경제협력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하고 덜 경제지배적(less-predatory)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본고의 분석은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한중일의 경제협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례를 보았을 때, 변화의 열쇠는 중국 내부 사회의 변화, 즉 (비권위주의적인) 소프트 파워 이해에 있을 것이다. 9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와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시작한 한국은 향후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형태의(태도의) 경제 진출과 협력이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122) '타자(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발'로 인해 손상된 일본상(소프트 파워)을 회복하려는 이 시기 일본의 전략은, 타자와의 소통이 부재한 국내중심적인 과정을 통해 "자기가 보기에 매력적인" 일본상을 구현하려 한 탈냉전기 일본의 소프트 파워 전략과 대비된다. 손열, 전개논문.